

한국사연구회

제344차 월례발표회

자 료 집

일시 : 2022년 11월 12일(토) 14:00~16:10

장소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3층 대회의실 및
ZOOM(대면·비대면 동시진행)

ZOOM ID: 253 266 4989 / PW: v7XCh4

식 순

사회: 박찬우(고려대)

제1발표 14:00~15:00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영역변천과 진번의 이동

발표 : 김기민(고려대)

토론 : 조원진(한양대 문화재연구소)

휴식 15:00~15:10

제2발표 15:10~16:10

조선후기 사찰의 토지 소유와 변동

-해남 대둔사(大菴寺)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 김선기(동국대)

토론 : 손성필(조선대)

목 차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영역변천과 진변의 이동

- 발표문 : 김기민(고려대) 1
- 토론문 : 조원진(한양대 문화재연구소) 31

조선후기 사찰의 토지 소유와 변동

-해남 대둔사(大菴寺)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문 : 김선기(동국대) 33
- 토론문 : 손성필(조선대) 55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영역변천과 진번의 이동

김기민(고려대)

1. 머리말
2. 『史記』 조선열전에 보이는 ‘眞蕃朝鮮’의 실제
3. 燕의 古朝鮮 서방 침공과 眞蕃의 위축
4. 위만의 집권 과정과 眞蕃의 이동
5. 맺음말

1. 머리말

『史記』 조선열전과 『魏略』에는 고조선과 중국 세력 간의 상호관계가 기술되어 있다. 고조선과 중국의 구체적인 관계가 확인되는 시기는 기원전 4세기 말부터이다. 이 시기 고조선은 王을 칭하고, 戰國 7雄 중 하나인 燕과 전쟁을 치렀다. 또한 秦~漢代를 거치면서도 양국과 고조선의 관계는 주로 전쟁과 관련된 기술이 대부분이다.

고조선은 戰國 燕 이후 약 100여 년 동안 중국 세력과 지속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그 영역에도 변동을 겪었다. 이에 고조선의 영역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그 중심지의 위치를 구명하는 것과 아울러, 전쟁 상대국이었던 중국과의 경계를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고조선의 중심지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평양설,¹⁾ 요동설²⁾, 이동설³⁾이 있다. 최근에는 이동설이 주목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비판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⁴⁾ 한편 중국과의 경계인 고조선의 西界에 대한 연구는 『魏略』과 『史記』에 각각 고조선과 燕, 漢과의 경계로 기록된 ‘滿番汗’⁵⁾과 ‘涓水’⁶⁾의 위치에 집중되었다.

1) 李丙燾, 1956, 「衛氏朝鮮興亡考」, 『서울大論文集』 4 ;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博英社 ; 송호정, 2003,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 리지린, 1963, 『고조선 연구』, 과학원출판사 ; 金南中, 2001, 「衛滿朝鮮의 領域과 王儉城」, 『韓國古代史研究』 22.

3) 徐榮洙, 1988, 「古朝鮮의 위치와 강역」, 『韓國史市民講座』 2, 一潮閣 ; 盧泰敦, 1990,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23 ; 李鍾旭, 1993, 『古朝鮮史研究』, 博英社 ; 박준형, 2012,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중심지와 서계의 변화」, 『史學研究』 108 ; 오현수, 2013, 「고조선 예맥 교섭망의 변동 양상 연구」, 『국학연구』 22 ; 조원진, 2020, 「고조선과 燕나라의 전쟁과 요동」, 『先史와 古代』 62.

4) 김정배, 2010, 「고조선의 이동설은 타당한가」,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 박대재, 2017, 「고조선 이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55.

5) 만번한의 위치에 대해서는 박천강(李丙燾, 1933, 「涓水考」, 『靑丘學叢』 13 ; 2012, 『韓國古代社會史論稿』 한국학술정보, 267~269쪽), 천산산맥 서남부(徐榮洙, 1999, 「古朝鮮의 對外關係와 疆域의

고조선의 영역은 漢이 편제한 四郡의 규모와 위치로 볼 때 서북한지역은 물론 요동지역까지 영유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사료의 한계로 인해 고조선의 전체적인 영역을 구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영역의 변천 과정이 확인되는 요동지역을 중심으로 고조선의 서쪽 경계를 찾는 연구가 집중된 것이다.

그런데 『史記』 조선열전에는 燕의 고조선 침공 시기 이래 眞番의 존재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기존에는 이때 보이는 진번에 대하여 다소 간과된 측면이 있지만, 진번의 존재 양상은 고조선의 영역변천을 이해하는 또 다른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조선의 전개 과정에 있어 진번과의 관계와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고조선과 진번의 관계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우선 고조선 시기의 경우 양자의 관계를 동등한 수준의 연맹 관계로 보는 견해가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⁷⁾ 그러나 고조선은 대체로 기원전 4세기 말에는 국가단계에 이해되므로 이 시기 진번이 고조선과 동등한 수준의 세력이었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⁸⁾ 한편 위만 집권 이후에는 『史記』 조선열전에 의거하여 대체로 진번을 위만조선 아래에 속한 지방 세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⁹⁾

진번과 관련된 최대 쟁점은 위치 문제이다. 진번의 위치 비정은 漢이 설치한 ‘眞番郡’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찾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위만조선의 중심지(평양)를 기준으로 ‘진번군 재북설(이하 재북설)’, ‘진번군 재남설(이하 재남설)’로 나뉜다. 재북설에서 진번군의 위치는 크게 동가강-압록강 유역,¹⁰⁾ 요동지역,¹¹⁾ 영고탑지역으로¹²⁾ 본다. 이와 달리 재남설은 貊國 故地,¹³⁾ 충청 및 전북지역,¹⁴⁾ 帶方郡 故地,¹⁵⁾ 황해도 남부~경기 북부지역으로¹⁶⁾ 보는

變動], 『東洋學』 29 ; 박준형, 2012, 앞의 논문), 요북 지역의 창도·개원 일대로 파악하는 견해(박대재, 2017, 앞의 논문) 등이 있다.

6) 溟水 비정에 대해서는 청천강설(李丙燾, 2012, 앞의 책 ; 송호정, 2003, 앞의 책), 압록강설(盧泰敦, 1990, 앞의 논문 ; 李鍾旭, 1993, 앞의 책), 혼하설(서영수, 1996, 「衛滿朝鮮의 形成過程과 國家的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9 ; 金南中, 2001, 앞의 논문 ; 박준형, 2012, 앞의 논문 ; 오현수, 2013, 앞의 논문)이 제기된 바 있다.

7) 송호정, 2003, 앞의 책, 282쪽 ; 박준형, 2014,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166~168쪽.

8) 千寬宇, 1989, 앞의 책, 14~16쪽 ; 金貞培, 1997, 「고조선의 변천」,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92~96쪽 ; 박대재, 2005a, 「古朝鮮의 ‘王’과 國家形成」, 『北方史論叢』 7, 159~166쪽.

9) 송호정, 2003, 앞의 책, 434·435쪽 ; 박대재, 2013, 앞의 논문, 270~272쪽.

10) 『我邦疆域考』 卷1 眞番考 ; 『海東釋史續集』 卷4 地理考4 四郡 眞番郡 ; 白鳥庫吉, 1913, 「武帝始建의4郡」, 『滿洲歷史地理』 1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3~12쪽.

11) 요동지역설은 대개 眞番과 요동군의 番汗縣을 관련지어 본 徐廣의 注에 주목해본다. 이를 통해 흥여하는 遼陽省을 眞番郡으로 보았으며(『東國通鑑提綱』 卷1 箕準王), 남구만은 番汗縣이 眞番의 옛 경계일 것으로 파악하였다(『藥泉集』 卷29 東史辨證), 한편 이세구는 『茂陵書』에 보이는 眞番郡의 치소인 靑縣과 요동군의 沓氏縣에 靑과 沓의 音이 유사하다는 점을 토대로 靑縣을 沓氏縣으로 비정하기도 하였다(『養窩集』 卷13 雜說下 東國三韓四郡古今疆域說).

12) 『東史綱目』 附錄下 四郡考 眞番考 ; 孫進己, 1989, 「前漢時東北地理的民族分布與行政建置」, 『東北歷史地理』 上, 黑龍江人民出版社, 188쪽.

13) 『東國地理誌』 四郡.

14) 今西龍, 1916, 「眞番郡考」, 『史林』 1-1 ; 池內宏, 1948, 「眞番郡の位置について」, 『史學雜誌』 57-2·3 ; 1951, 『滿鮮史研究』 上世 第一冊, 吉川弘文館). 한편 『茂陵書』의 군현 거리 기록을 토대로 영산강 유역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末松保和, 1965, 「眞番郡治考」, 『靑丘史草』 1, 1~19쪽).

15) 楊守敬, 1921, 「汪士鐸漢志釋地駁議」, 『晦明軒稿』 ; 1977, 『晦明軒稿』 上冊, 臺灣商務印書館, 151~156쪽.

시각이 제시되었다. 최근 진번군의 위치와 관련하여 재남설이 제기되고 있지만,¹⁷⁾ 대체로 황해도 남부~경기 북부지역으로 보는 재남설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진번의 시·공간적 차이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진번 이동설’이 주목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남설의 입장을 따르면서도 진번이 郡 설치 이전 어느 무렵 요동지역에 있었다는 것이다. 진번이 이동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燕~漢初에 걸친 혼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거나,¹⁸⁾ 戰國 燕의 침공으로 고조선의 중심지와 진번이 함께 이동했다고 본다.¹⁹⁾ 최근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에서는 후자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고조선 중심지 이동을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燕의 침공 시기 진번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제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魏略』에서 燕의 고조선 공격지점과 연결하여 燕과의 전쟁 시기에 진번이 고조선의 서방세력이었을 것으로 파악한다.²⁰⁾ 일부 중심지 이동설의 입장에서 진번을 고조선의 서방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있으나, 진번의 이동 계기는 여전히 진개의 침입으로 본다.²¹⁾ 하지만 燕의 침공 시기 진번이 고조선의 서방에 있었다면 그들이 고조선의 중심지를 넘어 이동하는 형국이 되므로 이동의 경위를 매끄럽게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같은 기록의 위만 망명 때에 보이는 진번의 존재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史記』 조선열전 속 위만이 망명한 시기에 확인되는 진번과 『史記』 대사공자서에 보이는 ‘眞藩’의 사례를 통해 위만의 망명지와 진번의 관련성을 상정해보는 연구도 있다.²²⁾

이처럼 진번의 위치 문제는 진번군에만 천착하였던 시각에서 벗어나 郡 설치 이전의 어느 시기 다른 지역에 존재했다는 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燕의 침공 시기 진번이 요동지역에 존재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史記』와 『魏略』의 사료 맥락으로 볼 때 진번 이동의 계기를 燕의 침공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더구나 『史記』에는 진번과 위만의 관련성을 암시하는 요소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진번이 고조선사의 전개 속에 어느 시기에 어떠한 지역에 위치하였는지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기원전 3세기 燕의 고조선 침공 시기부터 기원전 2세기 초 위만이 집권할 때까지 고조선의 영역변천 과정에서 진번의 존재 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위만조선 이전 진번의 존재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2장에서는 『史記』 조선열전 초반부의 ‘眞番朝鮮’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다. 특히 眞番朝鮮은 위만조선의 前史에서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구체적 실체가 ‘진번’과 관련되었음을 드러내 보겠다. 이를

16) 李丙燾, 1929, 「眞番郡考」, 『史學雜誌』 40·5 ;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17~125쪽.

17) 장병진, 2022, 「임둔·진번군의 치폐와 위치에 관한 재논의」, 『단군학연구』 47, 131~151쪽 ; 전진국, 2022, 「진번 위치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研究』 197, 132~144쪽.

18) 千寬宇, 1989, 앞의 책.

19) 徐榮洙, 1988, 앞의 논문, 44·45쪽 ; 박준형, 2012, 앞의 논문, 20·21쪽.

20) 박대재, 2017, 앞의 논문, 38~41쪽.

21) 조원진, 2020, 앞의 논문 ; 조원진, 2021, 「고대 진번의 변천 연구」, 『先史와 古代』 66, 156~163쪽.

22) 위만의 망명지와 진번의 관련성 연결하는 시각은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이었다는 입장에서 고조선의 서방에 존재했던 진번 지역에 위만이 망명했다고 보거나(강인숙, 1987, 「기원전 4-3세기 고조선의 서방」, 『비파형단검 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66~169쪽),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의 입장에서 연의 장수 진개의 침입으로 이동한 진번 故地에 위만이 망명했다는 견해(조원진, 2017, 「위만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한 검토 -朝·漢 전쟁 이전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109, 67쪽)가 있다.

기반으로 3장에서는 燕의 침공 결과 진번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동쪽 방향으로 위축되었다는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위만이 망명한 이후 진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그의 집권 과정에서 진번이 郡 설치 지역인 황해도로 이동하게 된 배경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진번은 고조선 영역의 일부로서 그 영역변천과 결부되어 존재했으며, 나아가 위만의 집권이라는 고조선의 중대한 변화에 따라 이동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史記』 조선열전에 보이는 ‘眞番朝鮮’의 실체

『史記』 조선열전과 『後漢書』, 『三國志』에는 진번을 비롯하여 臨屯, 濊君南閭, 沃沮와 같이 위만조선에 복속된 세력들이 보인다. 이들은 위만 집권 이전 고조선 시기부터 존재하였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자세한 양상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史記』 조선열전에는 기원전 3세기 초부터 진번의 존재가 확인된다.

고조선~위만조선 시기 진번의 존재와 고조선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史記』 조선열전의 진번 기사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史記』 조선열전에 보이는 진번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A. 조선왕 滿은 옛 燕人이다. 처음 燕이 강성했던 시기에 일찍이 ①眞番朝鮮을 略屬하여 관리를 두고, 障塞를 쌓았다. 秦이 燕을 멸하고, 遼東外徼에 屬하게 하였다. 漢이 일어나고 그곳이 멀고 지키기 어려워 遼東故塞를 다시 수리하여 淇水에 이르러 경계로 삼아 燕에 속하게 하였다. 燕王 盧綰이 반하여 匈奴로 들어가자 滿도 망명하였는데 무리 천여 인을 취하여 상투를 틀고 蠻夷의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달려 塞를 나와 淇水를 건너 秦의 옛空地인 상하장에 거하였다. 점차 ②眞番朝鮮蠻夷와 옛 연·제 망명자들을 役屬하여 그들의 왕이 되어, 王險에 도읍하였다. … 이에 滿이 (漢에게) 兵威財物을 얻어 그 주변의 소읍들을 침략하여 항복시키니, ③眞番과 臨屯도 모두 와서 服屬하여 사방 수천 리가 되었다. 아들을 거쳐 손자 右渠 때에 이르러 피어낸 漢의 망명자가 많았으며, 천자에게 入見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④眞番 주변의 衆國이 글을 올려 천자에게 알현하고자 하면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²³⁾

사료 A에서 진번은 4차례 확인되는데 표기 방식과 시기의 차이가 있다. 먼저 ①, ②의 진번은 위만조선 이전 고조선 시기에 보이며, 朝鮮과 병기되어 나타난다. 이와 달리 ③, ④의 진번은 위만 집권 이후 시점에 나타나며 단독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동일한 사료 안에서

23) 『史記』 卷115 朝鮮列傳. “朝鮮王滿者 故燕人也 自始全燕時嘗略屬眞番朝鮮 爲置吏 築鄣塞 秦滅燕 屬遼東外徼 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淇水爲界 屬燕 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魋結蠻夷服而東走出塞 渡淇水 居秦故空地上 鄣 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 都王險 … 以故滿得兵威財物侵降其旁小邑 眞番臨屯皆來服屬 方數千里 傳子至孫右渠 所誘漢亡人滋多 又未嘗入見 眞番旁衆國欲上書見天子 又擁閼不通.”

‘眞番朝鮮’과 ‘眞番’이 구분되는 점은 양자의 성격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진번의 표기를 위만의 집권을 기점으로 구분하면, ③, ④는 비교적 그 위치와 성격에 논란이 적다. ④의 ‘眞番旁衆國’ 중 ‘衆國(辰國)’²⁴⁾이 한반도 중남부지역으로 비정되어 함께 기재된 진번 역시 그와 인접한 위만조선 중심부의 남쪽에 있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眞番朝鮮은 기원전 3세기 초 고조선과 燕의 관계 기사,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하였을 시점에 확인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眞番朝鮮에 대해 ①의 燕과 관련된 기사에만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②의 위만이 망명한 후 眞番朝鮮이 다시 등장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①과 ②에 보이는 眞番朝鮮의 존재를 염두에 둔다면 양자 사이에 기재된 秦代에 遼東外徼에 속했다거나, 漢初에 멀고 지키기 어려웠다는 대상은 맥락상 眞番朝鮮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史記』 조선열전의 초반 서술 대상은 燕과의 관계에 처음 보이는 眞番朝鮮이라 할 수 있다. 결국 眞番朝鮮의 해석에 따라 『史記』 조선열전의 이해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런데 이 眞番朝鮮에 대해서는 ‘眞番과 朝鮮’²⁵⁾ 혹은 ‘眞番朝鮮’²⁶⁾으로 해석되어 가리키는 대상의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전자를 따른다. 다만 사료 A의 맥락을 전자와 같이 해석하면 戰國 燕~漢初에 걸쳐 眞番과 朝鮮이 중국의 영향력 안에 속하였던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魏略』에는 『史記』 조선열전과 동일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

【표1】 『史記』 조선열전과 『魏略』에 기재된 燕~漢初 관련 기사 비교

	『史記』 조선열전	『魏略』
對燕 관계	燕이 강성했던 시기에 일찍이 眞番朝鮮을 略屬하여 관리를 두고 障塞를 쌓았다.	燕은 이에 장수 秦開를 보내 그 서방을 공격해 2천여 리의 땅을 취하여 滿番汗에 이르러 경계로 삼으니 조선이 마침내 약화되었다.
對秦 관계	秦이 燕을 滅하고, (眞番朝鮮을) 遼東外徼에 屬하게 하였다.	이때 朝鮮王 否가 王이 되었는데, 秦의 습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정략적으로 秦에 服屬은 하였으나 朝會에는 나가지 않았다.
漢初 위만 망명	燕王 盧綰이 반하여 匈奴로 들어가자 滿도 망명하였는데 무리 천여 인을 취하여 상투를 틀고 蠻夷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달려 塞를 나와 溟水를 건너 秦의 옛 空地인 상하장에 거하였다. 점차 眞番朝鮮蠻夷와 옛 연·제 망명자들을 役屬하여 그들의 왕이 되어 王險에 도읍하였다.	(盧)綰이 반하여 匈奴로 도망간 뒤, 燕人 衛滿도 亡命하여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溟水를 건너 準에게 항복하였다. … 準은 … 百里의 땅을 봉해 주어 서쪽 변경(西邊)을 지키게 하였다.

【표1】은 『史記』 조선열전에 眞番朝鮮이 기재된 부분과 같은 시기를 서술한 『魏略』의 기사를 비교한 것이다. 먼저 고조선과 燕의 관계에서 『史記』 조선열전에는 ‘眞番朝鮮’이라

24) 『史記』 조선열전의 ‘衆國(南宋本)’은 판본에 따라 ‘辰國(北宋本)’으로도 보인다. 최근에는 北宋本 이전 간행된 『太平御覽』에 ‘衆國’이라 기록되어 있어 시기상 ‘衆國’이 『史記』의 원문에 가까울 것으로 이해된다(박대재, 2005b, 「三韓의 기원에 대한 사료적 검토」, 『韓國學報』 31, 5~11쪽).

25) 『史記』 卷115 朝鮮列傳 眞番朝鮮 注. “【索隱】如淳云 燕嘗略二國以屬己也.”

26) 顧銘學, 1992, 「先秦時期中朝關係問題初探」, 『韓國學論文集』 1, 14·15쪽 ; 徐德源, 2006, 「關於朝鮮歷史地理研究中若干問題的解誤」, 『東北史地』 2006-5, 2·3쪽.

는 구체적 대상이 서술되어 있으나, 『魏略』에는 燕이 고조선의 서방을 침공하였고 그로 인해 고조선이 약화되었다고 하여 특정 지역을 기재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보이는 ‘서방’과 ‘약화’라는 구절은 眞番朝鮮 이해에 중요한 전제가 된다.

그렇다면 서방이 고조선 영역 안의 지역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석에 따라 서방은 고조선의 영역 밖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魏略』의 같은 구절에는 準王 시기 중국계 유민들의 유입 과정에서도 ‘서방’이 확인된다. 준왕은 중국계 유민들이 고조선으로 넘어오자 이들을 서방에 거주하게 하였다.²⁷⁾ 이때 서방은 이미 고조선의 왕 準이 유이민들에게 나누어준 땅이므로 고조선 영역의 안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燕이 침공한 고조선의 서방 역시 영내의 서쪽 지역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魏略』에서 秦의 공격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秦에 대한 조선왕 조의 조치와 『史記』 조선열전의 ‘遼東外徼’에 유의하면 秦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위만의 망명 시기에 眞番朝鮮이 다시 등장한다. 『史記』에는 위만이 秦의 옛 공지인 上下鄣에 망명한 후 眞番朝鮮을 役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같은 내용을 전하는 『魏略』에서 진번의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위만이 망명하여 세력을 확장한 지역이 고조선의 서쪽 지역임을 가리키고 있다.

【표1】을 종합해본 결과 고조선과 燕의 전쟁부터 위만의 망명지와 관련된 사건은 각각 구체적 대상이 ‘眞番朝鮮’이며, 대상 지역은 ‘고조선의 서방’임을 확인하였다. 즉 眞番朝鮮은 고조선의 서방 지역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眞番朝鮮이 고조선 영역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魏略』과 비교해 본 결과 분명하다. 다만 眞番朝鮮이 의미하는 영역적 범위가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朝鮮’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나 『史記』 조선열전만으로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 이에 비교 사례를 통해 해석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眞番朝鮮의 해석은 유사한 몇 가지 용례와 비교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管子』의 ‘發朝鮮’,²⁸⁾ 『史記』의 ‘濊朝鮮’, ‘穢貉朝鮮’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역시 양자를 나눌 것 인지,²⁹⁾ 연결하여 볼 것인지에³⁰⁾ 관한 논의가 있지만 대체로 후자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發朝鮮의 해석에서는 ‘發’을 종족·주민의 개념으로, ‘朝鮮’은 지역 혹은 집단에 대한 호칭의 성격으로 이해한다.³¹⁾ 즉 發朝鮮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면서도 그 의미를 구분하

27) 『三國志』 卷30 魏書30 烏桓鮮卑東夷傳 韓 所引 魏略. “二十餘年而陳項起 天下亂 燕齊趙民愁苦 稍稍亡往準 準乃置之於西方.”

28) 『管子』 揆度. “管子對曰 … 發朝鮮之文皮 一筴也.”

29) 발조선과 예맥조선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관점은 연칭된 두 대상을 동일 계열의 다른 세력으로 파악하여 발과 조선(오현수, 2015, 『『魏略』 기재 朝鮮侯와 ‘取地二千餘里’의 검토』, 『韓國史學報』 61, 54쪽), 예맥과 조선(송호정, 2003, 앞의 책, 167~168쪽 ; 권오중, 2015, 『고대 중국 正史에서의 예맥 -‘요동예맥’의 자취에 관한 검토로서-』, 『동북아역사논총』 49, 249~250쪽)을 지역적으로 구분해본다.

30) 발조선을 하나의 세력으로 본 입장은 ‘發’과 ‘貉’이 통한다는 점을 토대로 발의 조선 즉, 貉族의 조선으로 이해한다(金貞培, 2000, 『東北亞의 琵琶形銅劍文化에 대한 綜合的 研究』 『國史館論叢』 88, 70~71쪽 ; 박대재, 2013,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景仁文化社, 163쪽). 한편 예맥조선의 경우 穢貉朝鮮 혹은 穢貉이 곧 위만조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박경철, 2006, 『고조선·부여의 주민 구성과 종족』, 『北方史論叢』 6, 144쪽 ; 최슬기, 2017, 『衛滿朝鮮과 匈奴의 ‘穢裘’ 交易』, 『先史와 古代』 52, 65~70쪽).

31) 金貞培, 2000, 앞의 논문, 71쪽.

여 보는 것인데, 이는 비슷한 구조인 眞番朝鮮의 해석에도 시사점을 준다.

B-1 彭吳가 濊(滅)朝鮮과 장사하여(賈) 滄海郡을 두니 燕과 齊 지역이 소란스럽게 움직였다.³²⁾

B-2 彭吳가 穢貊朝鮮을 뚫어(穿) 滄海郡을 두니 燕과 齊 지역이 소란스럽게 움직였다.³³⁾

B-3 元朔元年 濊君南閭 등이 右渠에 畔하여 28만구를 거느리고 요동에 이르러 內屬하니 武帝가 그 땅을 蒼海郡으로 삼았다가 수년 후에 파하였다.³⁴⁾

한편 眞番朝鮮이 가리키는 범위와 관련하여 滄海郡 설치를 전하는 사료 B가 주목된다. 사료 B-1에는 기원전 128년 漢에 의해 설치된 창해군의 설치 대상을 濊朝鮮³⁵⁾이라 하여 眞番朝鮮과 유사한 사례가 보인다. B-2는 『漢書』 식화지의 기사인데 B-1과 거의 유사하나 穢貊朝鮮이라 기록되어 있다. 『史記』에는 또한 화식열전의 ‘穢貉’,³⁶⁾ 흉노열전의 ‘穢貉朝鮮’,³⁷⁾ 평진후주보열전의 ‘濊州’³⁸⁾가 있다. 특히 화식열전에는 穢貉과 眞番이 구분되어 있어, 濊(穢)와 穢貉(穢貉)은 표기는 다르지만 같은 대상을 지칭하며, 眞番과는 별개의 세력임을 알 수 있다. 단순히 B-1·2의 기사로 본다면 濊(穢貉)과 朝鮮을 분리하여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창해군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기재된 B-3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B-3에서는 구체적인 郡 설치 대상과 위만조선과의 관계가 확인된다. 먼저 창해군의 설치 대상은 濊君南閭를 비롯한 28만구라 하였는데, 이는 B-1·2의 濊(穢貉)朝鮮과 대응한다. 또한 당시 위만조선의 왕이었던 右渠에게 반하였다는 기사로 보아 예군남려 세력은 본래 위만조선에 속한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³⁹⁾ 이 같은 B-3 기사의 맥락으로 볼 때 예(예맥)와 조선을 나누어 보게 되면 동일한 사건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창해군의 설치지점은 의견이 분분하나 위만조선의 일부 지역이라는 것은 분명하다.⁴⁰⁾ 즉 창해군의 설치 대상으로 기재된 濊朝鮮은 위만조선에 속해 있던 예군남려와 관련된 지역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⁴¹⁾ 이는 앞서 『魏略』과의 비교를 통해 眞番朝鮮을 고조선의 서방으로

32) 『史記』卷30 平準書. “彭吳賈滅朝鮮 置滄海之郡 則燕齊之間靡然發動.”

33) 『漢書』卷24下 食貨志下. “彭吳穿穢貊朝鮮 置滄海郡 則燕齊之間靡然發動.”

34) 『後漢書』卷84 東夷列傳75 濊. “元朔元年 濊君南閭等畔右渠 率二十八萬口詣遼東內屬 武帝以其地爲蒼海郡 數年乃罷.”

35) 『史記』평준서에는 ‘滅朝鮮’이라 하여 ‘滅’로 기록되어 있으나, 『漢書』 식화지의 ‘彭吳穿穢貊朝鮮 置滄海郡’과 비교할 때 ‘濊’의 誤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今西龍, 1916, 앞의 논문, 72·73쪽).

36) 『史記』卷129 貨殖列傳. “夫燕亦勃碣之間一都會也 … 北鄰烏桓夫餘 東綰穢貉朝鮮眞番之利.”

37) 『史記』卷110 匈奴列傳. “諸左方王將居東方 直上谷以往者 東接穢貉朝鮮 右方王將居西方 直上郡以西 接月氏氏羌 … 漢使楊信於匈奴 是時漢東拔 穢貉朝鮮以爲郡 而西置酒泉郡以隔絕胡與羌通之路.”

38) 『史記』卷112 平津侯主父列傳. “今欲招南夷 朝夜郎 降羌僰 略濊州 建城邑 深入匈奴 燔其龍城 議者美之.”

39) 조원진, 2017, 앞의 논문, 19쪽 ; 이준성, 2020, 「濊君南閭의 동향과 滄海郡·玄菟郡 설치」, 『白山學報』 116, 98쪽.

40) 창해군의 위치에 관한 여러 견해와 쟁점은 최슬기, 2021, 「蒼海郡 위치비정의 쟁점과 전제」, 『고조선단군학』 44에 자세하다.

보았던 이해와 연결된다. 즉 眞番朝鮮은 고조선의 서방에 존재했던 지역세력인 것이다.

한편 眞番朝鮮의 의미는 『史記』 열전의 구조와 서술 의도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史記』 조선열전의 서사 구조는 (1) 위만조선 이전의 조선과 중국왕조의 관계 (2) 위만의 집권 과정과 漢과의 외교 관계 (3) 漢 武帝의 조선 침략과 조선의 저항 (4) 四郡의 설치와 군공 처리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⁴²⁾ 이러한 구조는 다른 외국열전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대상국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서술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직접적인 관련(외교·군사)이 있는 소재만을 서술 대상으로 삼아 작성된 것이다.⁴³⁾

『史記』 조선열전의 경우 남월과 동월열전의 구조와 유사하다. 특히 眞番朝鮮의 경우 위만조선 이전 중국과의 관계와 위만의 집권 과정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주변 열전의 서술방식과 비교함으로써 의미하는 바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표2】 『史記』 조선·남월·동월열전의 초반부 비교

구분	출전	내용
㉠	조선열전	조선왕 滿은 옛 燕人이다.
	남월열전	남월왕 尉佗는 眞定人이다.
	동월열전	민월왕 無諸와 월 동해왕 搖는 그 선조가 모두 越王 句踐의 후손이다.
㉡	조선열전	처음 燕이 강성했던 시기에 일찍이 眞番朝鮮을 略屬하여 관리를 두고, 鄣塞를 쌓았다. 秦이 燕을 滅하고, 遼東外徼에 屬하게 하였다.
	남월열전	秦 시기에 이미 천하를 병합하고 楊越을 略定하여 桂林·南海·象郡을 두었다.
	동월열전	秦이 이미 천하를 병합하고 모두 폐하여 군장으로 삼고 그 땅을 閩中郡으로 삼았다.
㉢	조선열전	漢이 일어나 … 滿도 망명하였는데 … 秦의 옛 空地인 상하장에 거하였다. 점차 眞番朝鮮蠻夷와 옛 燕·齊 망명자들을 役屬하여 그들의 왕이 되어 王險에 도읍하였다.
	남월열전	佗는 秦 시기에 南海 龍川令으로 있었는데 … 秦이 멸망하자 佗는 곧 桂林·象郡을 쳐서 병합하고 스스로 南越 武王에 올랐다.
	동월열전	제후가 秦에 반하자 無諸와 搖는 越人을 이끌고 鄱陽令 吳芮에게 귀순하였다 … 漢 5년 다시 無諸를 閩越王으로 삼으니 閩中の 옛 땅을 통치하고 東冶에 도읍하였다.

【표2】는 『史記』 조선·남월·동월열전의 도입부이다. 각 구절은 ㉠ 건국자의 출신, ㉡ 각국의 前史, ㉢ 秦末漢初의 건국 과정으로 세분된다. 이러한 서사구조로 내용을 전개해 나간 사마천의 의도는 해당 국가가 중국과 혈연적으로 유관하며, 戰國~漢初에 이르는 동안 해당 국가가 중국의 영역적 지배를 받았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⁴⁾ 먼저 ㉠은 각 건국자의 출신에 대해 故燕人, 眞定人, 越王 句踐의 후손이라 하여 모두 중국과 혈연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眞番朝鮮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와 ㉢이다. 남월·동월의 사례를 보면 ㉡에서 모두 秦代에 郡이 설치되어 중국의 영역적 지배가 이루어졌던 것이 확인된다. 또한 ㉢의 경우 남월왕 조타는 秦에 의해 설치된 南海郡의 龍川令을 지냈으며 3郡을 통합하여 무왕에 올랐다.

41) 박대재, 2014, 「古朝鮮과 齊의 해상교류와 遼東」, 『韓國史學報』 57, 35쪽.

42) 金翰奎, 1980, 「衛滿朝鮮關係 中國側使料에 대한 再檢討」, 『釜山女大論文集』 8, 132쪽.

43) 高柄翊, 1970, 「中國正史의 外國列傳」,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7·8쪽.

44) 김병준, 2008, 「漢이 구성한 고조선 멸망 과정 -『사기』 조선열전의 재검토-」, 『韓國古代史研究』 50, 10·11쪽.

민월왕 무제 역시 漢初에 이르러 閩中郡의 땅에서 왕이 되었다. 이처럼 ㉔는 秦代에 영역적 지배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건국자가 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열전의 ㉕ 역시 두 사례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한 가지 다른 지점이 있다. 그것은 중국 세력이 고조선에 미친 영향력의 차이다. 남월과 동월의 경우 해당 지역 전체에 秦의 郡이 설치되었다. 이에 비해 고조선은 燕·秦代에 걸쳐 郡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변경의 수비 시설인 塞나 徼가 설치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燕·秦代에 걸친 서술을 따라가 보면 해당 부분은 ㉔에서 燕·秦 시기의 정황과 얹힌 지역인 ‘상하장’에 위만이 망명하였다는 사실로 연결된다.

결국 『史記』 조선열전 도입부에서 사마천이 의도한 것은 위만이 망명한 지역에 대한 연혁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1】에서 보았듯이 위만이 망명하여 머문 곳은 고조선의 서방 즉 상하장이라 하였다. 따라서 『史記』 조선열전의 眞番朝鮮은 고조선 전체가 아닌 그 서방 지역으로 보아야 한다. 사마천이 위만조선의 前史를 서방 지역에 한정된 것은 燕·秦 시기 고조선에 미친 중국의 영향력이 서방에 그쳤으며, 위만이 그 지역에 망명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眞番朝鮮의 朝鮮은 진번과 구별되는 동등한 실체라기보다 진번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넓은 개념(국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사마천이 고조선 전체가 중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갔음을 서술하려 했다면 朝鮮 앞에 굳이 진번을 병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즉 眞番朝鮮의 방점은 진번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위만의 행적이 요약된 『史記』 태사공자서에 朝鮮이 아닌 眞番[眞藩]이 언급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⁴⁵⁾ 다만 여기서 조선을 병칭한 것은 진번이 고조선과 관련된 지역 세력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칫 『史記』 조선열전의 초반부를 이처럼 이해하면 위만이 고조선의 서방에서 집권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魏略』에서 보이듯이 위만은 망명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고조선의 중심지[王險城]에서 집권하였다. 사마천 역시 이러한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이에 그는 위만의 망명 후 집권 과정과 관련된 ‘役屬~都王險’의 구절 앞에 ‘점차(稍)’라는 단어만을 삽입함으로써 중간 과정을 함축해서 서술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眞番朝鮮은 燕의 침입 이래 위만이 망명한 시기까지 고조선의 서방에 있었던 진번이라는 동일한 실체임을 알 수 있다.⁴⁶⁾ 이는 고조선과 진번의 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魏略』에 보이듯이 기원전 4세기 말 무렵 고조선은 왕호·관제·왕위세습의 요소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국가단계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⁴⁷⁾ 또한 【표1】과 같이 진번은 고조선의 서방으로 인식되었고, 燕의 공격이 고조선의 약화를 불러왔기 때문에 진번을 별개의 세력으로 보기 어렵다. 위만조선 시기 진번은 복속되어 있던 군장 사회 이상의 정치체로 이해된다.⁴⁸⁾ 고조선 시기에도 진번은 위만조선 때와 유사한 발전단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진번은 위만조선 이전부터 고조선에 속했던 서방의 지역 세력으로 봄이 합당하다.

이를 종합하면 진번은 위만 집권 이전까지 고조선의 서방에 존재하였던 지역 세력이었음

45) 『史記』 卷130 太史公自序. “燕丹散亂遼間 滿收其亡民 厥聚海東 以集眞藩 葆塞爲外臣.”

46) 이상에 따르면 『史記』 조선열전의 위만 집권 이전에 보이는 ‘眞番朝鮮’과 위만 집권 이후의 ‘眞番’은 표기와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실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후의 장에서는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眞番’으로 통일하여 표기하도록 하겠다.

47) 박대재, 2005a, 앞의 논문, 159~166쪽.

48) 金貞培, 1987, 「사기 조선열전 역주」, 『중국정사조선전 역주』 1, 국사편찬위원회, 34쪽.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만조선 멸망 후 설치된 진번군의 위치는 앞서 ‘眞番旁衆國(辰國)’의 기사를 감안하면 그 중심지의 남부인 황해도 지역임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어느 시기엔가 이동이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⁴⁹⁾ 다음 장에서는 기원전 3세기 이래 고조선의 서방 세력이었던 진번의 이동 양상에 대해 접근해보도록 하겠다.

3. 燕의 古朝鮮 서방 침공과 眞番의 위축

2장에서는 『史記』 조선열전의 도입부, 즉 위만조선의 前史를 다루는 부분에서 서술 대상으로 삼은 실체가 진번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진번이 최초로 등장하는 시점은 燕의 고조선 침공 시기이다. 이에 대해 『史記』에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전하지만 『魏略』과 『鹽鐵論』에는 양국 간 전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보인다.

C-1. ①옛 箕子の 후손인 朝鮮侯는 周가 쇠약해진 것을 보고 燕이 스스로 높여 王이라 칭하고 동쪽의 땅을 공략하려 하자 朝鮮侯 역시 스스로 王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역으로 燕을 공격하여 周 王室을 받들려 하였으나, 그 大夫 禮가 諫하니 이에 그쳤다. 그리하여 禮를 서쪽에 보내 燕을 설득하게 하니, 燕도 멈추고 공격하지 않았다. ②그 뒤에 子孫이 점점 교만하고 포악해지자, 燕은 이에 장수 秦開를 보내 그(조선) 서쪽 지방을 공격해 2천여 리의 땅을 취하여 滿番汗에 이르러 경계로 삼으니 조선이 마침내 약화되었다.⁵⁰⁾

C-2 燕은 東胡를 습격해 물러나게 하여 千里의 땅을 개척하고, 遼東으로 건너가 조선을 공격하였다.⁵¹⁾

C-1에는 기원전 4세기 말부터 확인되는 고조선과 燕의 관계를 전하고 있는데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①에는 기원전 4세기 말 고조선과 燕의 稱王 이후 양국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있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燕의 稱王은 기원전 323년 易王 때에 이루어졌으니, 고조선 역시 비슷한 시기에 稱王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²⁾ 이때 양국은 전쟁 직전에 이르렀으나 고조선의 大夫였던 禮의 활약으로 무마되었다.

49) 최근 『史記』의 ‘眞番旁衆國(辰國)’의 원문이 ‘衆國’에 가까울 것이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진번 주변의 여러 국으로 해석하여 재남설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장병진 2022, 앞의 논문 ; 전진국 2022, 앞의 논문). 그러나 이를 ‘衆國’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史記』와 거의 같은 기록을 전하는 『漢書』에 ‘眞番辰國’이라 하여 ‘辰國’의 존재가 나타난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衆國과 辰國의 성격이 지역적으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면 『史記』에 衆國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재남설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이해할 수는 없다.

50) 『三國志』卷30 魏書30 烏桓鮮卑東夷傳 韓 所引 魏略.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

51) 『鹽鐵論』卷8 伐攻. “燕襲走東胡 辟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

52) 金貞培, 1997, 「초기국가의 성격」,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32·33쪽 ; 박대재, 2006, 「古朝鮮과 燕·齊의 상호관계」, 『史學研究』 83, 6~9쪽.

이후 ②에서는 양국의 본격적인 무력 충돌이 확인된다. ①과 ②의 사이 燕은 내부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燕은 易王 이후 기원전 314년 子之의 亂이 발생하여 혼란을 겪었으나, 昭王이 즉위하면서 변법 시행을 통해 국가를 재건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昭王은 기원전 284~283년 齊를 정벌한 이후 기원전 282~280년의 시점에 고조선을 침공하였다.⁵³⁾

C-1에서는 燕이 침공한 고조선의 지역에 대해 ‘조선의 서방’이라 하였는데, 이를 『史記』 조선열전과 연결하면 燕이 略屬한 ‘眞番朝鮮’이 된다. 즉 燕이 공격한 고조선의 서방은 진번이 있던 곳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 진번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이는 燕의 침공 이전 고조선의 서방이 어디인가를 밝힘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침공 이전 고조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C-1의 燕이 고조선을 공격하여 취했다는 ‘2000여리’에 주목해왔다. 2000여리의 수치에 대해서는 그대로를 신뢰하거나,⁵⁴⁾ 『史記』 흉노열전에 기재된 동호와 관련된 1000리를 포함해 해석하는⁵⁵⁾ 관점으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2000여리를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史記』 흉노열전에 燕이 설치한 5郡과 관련지어 요서·요동군 지역이 본래 고조선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다.⁵⁶⁾

그러나 2000여리를 통한 침공 이전 고조선의 범위 추정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史記』 흉노열전에 보이는 燕 5郡의 경우 ‘拒胡’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할 뿐 고조선에 대한 언급은 없다.⁵⁷⁾ 사마천은 『史記』에 군현이 설치된 사실을 명확하게 적었는데, 고조선의 경우 ‘鄣塞’를 설치했다는 표현에 그치고 있다. 만약 고조선 지역에 郡이 설치되었다면 『史記』 조선열전에 그 사실을 기재했을 것이다.

C-1에서는 燕이 고조선의 서방을 공격했다고 하면서 2000여리를 취했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신뢰한다면 고조선의 서방이 지나치게 넓어져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따라서 『魏略』에 대한 해석은 2000여리라는 숫자에 천착하기보다, 燕이 고조선의 서방을 공격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중심을 옮겨오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燕이 고조선을 침공했던 시점과 종점을 찾음으로써 지역적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며, 이를 고조선의 서방에 있었던 眞番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燕의 고조선 공격 시점은 C-2의 ‘度遼東’하여 조선을 쳤다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왕의 ‘度遼東’ 해석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⁵⁸⁾ 『史記』 흉노열전에는 이와 관련하여 ‘度河南’의 사례가 있어 참고 된다. 흉노열전에는 匈奴가 이전에 秦의 몽염에 의해 탈취당한 河南 땅을 되찾는 과정에서 ‘度河南’이라는 표현이 보인다.⁵⁹⁾ 여기서 ‘度河南’이란 표현은 匈奴가 이전에 秦에게 빼앗겼던 ‘河南地(황하 이남)’로 건너갔다고(度) 이해된다. 이를

53) 陳平, 1995, 『燕史記事編年會按』 下冊, 北京大學出版社, 212·213쪽 ; 裴眞永, 2003, 「燕昭王의 정책과 巨燕의 성립」, 『中國史研究』 25, 19·20쪽.

54) 박준형, 2012, 앞의 논문, 24쪽 ; 오현수, 2015, 앞의 논문, 61~70쪽.

55) 李丙燾, 1956, 앞의 논문, 8·9쪽 ; 徐榮洙, 1988, 앞의 논문, 41쪽.

56) 徐榮洙, 1999, 앞의 논문, 18쪽 ; 박준형, 2012, 앞의 논문, 24쪽.

57) 『史記』 卷110 匈奴列傳.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58) 『鹽鐵論』의 ‘度遼東’에 대해서는 ‘요동으로 건너가’(張博泉, 1985, 『東北地方史稿』, 吉林大學出版社, 42~45쪽), ‘요동을 건너’(송호정, 2010,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58, 43·44쪽) 혹은 ‘度遼水’의 誤記로 보고 ‘遼水(요하)를 건너’(박준형 2012, 앞의 논문, 22·23쪽)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59) 『史記』 卷110 匈奴列傳. “十餘年而蒙恬死 諸侯畔秦 中國擾亂 諸秦所徙適戍邊者皆復去 於是匈奴得寬 復稍度河南與中國界於故塞.”

C-2의 度遼東에 대입해본다면 燕은 遼東으로 건너가(度) 조선을 공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度’를 쓴 것은 匈奴가 황하를 건넌 것과 같이 요하를 지났기 때문이다. 즉 요하 건너의 요동이 고조선 지역인 것이다.

한편 요하 동쪽으로부터 燕 공격의 종점으로는 B-2에 전쟁 후 경계로 기록된 ‘滿番汗’이 주목된다. 滿番汗에 대해서는 『我邦疆域考』에서 文縣과 番汗縣의 連稱(이하 연칭설)으로 본 정약용의 해석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⁶⁰⁾ 후대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지리적 비정이 이루어진 文縣에 기대어 滿番汗의 위치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정작 『漢書』 지리지에 기재된 番汗의 위치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정약용의 해석은 『漢書』 지리지의 기재 순서가 지리적 인접성과 연관된다는 점과⁶¹⁾ ‘滿’과 ‘文(汶)’의 유사성을 고려한 결과였다. 그러나 최근 『漢書』 지리지 요동군 각 현의 위치 비정 성과를 볼 때 기재 순서는 지리적 인접성과 거리가 있다.⁶²⁾ 이 밖에도 曹魏 시기 산동 반도로 이동한 유이민의 사례나⁶³⁾ 『晉書』 地理志 平州 遼東國條에서도 文縣과 가까운 요동 반도 서남단의 縣은 보이지만 番汗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두 현이 인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滿番汗의 위치 해명을 위해서는 縣名이 확실한 番汗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⁶⁴⁾ 더구나 番汗은 東晉 시기 서광이 진번과 관련지어 본 바 있어 양자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⁶⁵⁾

番汗의 위치에 대해서는 『漢書』 지리지 番汗에 대한 반고의 注인 “沛水가 塞外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⁶⁶⁾와 『說文解字』에 “沛水가 遼東 番汗 塞外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⁶⁷⁾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番汗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인 ‘塞外’와 ‘沛水’가 확인된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沛水가 塞外에서 나온다.’라는 구절과 番汗 위치와의 관련성이다. 여기서 ‘塞外’는 요동군의 塞外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연칭설에서는 番汗의 위치에 대해 文縣이 천산산맥 서남부의 海城 혹은 營口縣으로 비정됨에 따라⁶⁸⁾ 그와 인접한 지역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치 비정이 이루어진 요동군 屬縣의 분포로 보아 천산산맥 서남단은 塞外와 관련짓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60) 박대재·최슬기, 2020, 『『我邦疆域考』 역주·비평(1) -朝鮮考-』, 『韓國史學報』 78, 367쪽.

61) 『漢書』 卷28下 地理志8下 遼東郡. “文【莽曰 文亭】 番汗【沛水出塞外 西南入海】 沓氏.”

62) 孫進己, 1989, 앞의 책 ; 王綿厚·李健才, 1990, 『東北古代交通』, 瀋陽出版社 ; 동아시아교통사연구회, 2020, 『고대 동북아시아 교통사』, 주류성.

63) 『三國志』 卷4 魏書4 三少帝紀4 齊王芳. “夏六月 以遼東東沓縣 吏民渡海居齊郡界 以故縱城爲新沓縣以居徙民.” ; 正始元年, “丙戌 以遼東汶北豐縣民流徙渡海 規齊郡之西安臨菑昌國縣界爲新汶南豐縣 以居流民.”

64) 박대재, 2017, 앞의 논문, 49·50쪽. 중국학계에서도 滿番汗을 番汗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劉子敏, 1996, 『戰國秦漢時期遼東郡東部邊界考』, 『社會科學戰線』 1996-5, 132쪽 ; 苗威, 2019, 『箕氏朝鮮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54쪽).

65) 『史記』 卷115 朝鮮列傳 眞番朝鮮 注. “眞番【集解】 徐廣曰 一作莫 遼東有番汗縣.”

66) 『漢書』 卷28下 地理志8下 遼東郡. “番汗【沛水出塞外 西南入海】.”

67) 『說文解字』 卷12 水部. “沛水出遼東番汗塞外 西南入海.”

68) 文縣의 구체적인 위치는 遼寧省 海城縣 析木城村 漢城(孫進己, 1989, 앞의 책, 202쪽), 혹은 遼寧省 營口 大石橋 남쪽의 永安村에서 발굴된 漢代 土城址로 비정된다(王綿厚·朴文英, 2016, 『中國東北與東北亞古代交通史』, 遼寧人民出版社, 61·62쪽).

이와 관련하여 番汗에 대한 반고의 注와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 요동군 望平縣을 들 수 있다. 『漢書』 지리지 망평현 注에는 “大遼水가 塞外에서 나와 남쪽으로 安市에 이르러 바다에 들어간다.”⁶⁹⁾라고 하였다. 이는 沛水가 塞外에서 나와 바다로 들어간다는 서술과 유사하다. 망평현의 위치는 대체로 大遼水(遼河)가 塞內로 들어오는 요동군의 최북단으로 비정된다.⁷⁰⁾ 즉 변한현은 망평현과 서술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沛水가 塞內로 들어온 지점과 가까운 곳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塞外에서 요동군 경내로 들어오는 沛水가 어떠한 강인가가 문제이다. 종래 沛水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제기되어 왔지만, 燕의 침공 시기 고조선이 요하 동쪽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그 동쪽의 강인 大寧江(博川江),⁷¹⁾ 淤泥河,⁷²⁾ 東遼河,⁷³⁾ 渾河로 좁혀진다.

番汗과 관련된 沛水를 비정함에 있어 사료상 滿番汗이 고조선과 燕의 경계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滿番汗과 연결된 沛水와 『史記』 조선열전의 溟水가 같은 강인가를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漢書』 지리지에 의하면 요동군에는 沛水가 보이며, 낙랑군에는 溟水縣이 확인되어 두 강을 다르게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⁷⁴⁾ 그런데 『鹽鐵論』에는 秦이 ‘沛水’를 건너 조선을 공격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史記』 조선열전에는 漢初에 秦이 설치한 外徼에서 물러나 ‘溟水’를 경계로 삼았다고 한다. 두 기록을 종합하면 秦이 나아가고 漢이 물러난 沛水(溟水)가 일치되는 것이다. 즉 고조선과 중국의 경계로 기록된 沛水와 溟水是 같은 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⁷⁵⁾

沛水와 溟水を 동일한 강으로 본다면 『史記』 조선열전에 漢이 물러나 수리하였다는 ‘遼東故塞’가 중요하다. 遼東故塞는 戰國 燕이 설치한 ‘鄣塞’로 이해되는데, 이 역시 溟水の 서쪽에 있었다. 따라서 沛水是 燕의 고조선 공격에 종점이기 때문에 番汗은 燕의 공격점인 遼河와 沛水 사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혼하가 주목된다. 沛水=혼하설은 최근 고조선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⁷⁶⁾ 혼하는 沛水가 塞外에서 나와 서남류하여 바다로 들어간다는 서술과도 부합한다. 다만 혼하설에서 番汗은 연청설의 입장에서 혼하의 하구로 비정한다.⁷⁷⁾ 그러나 혼

69) 『漢書』 卷28下 地理志8下 遼東郡. “望平【大遼水出塞外 南至安市入海】.”

70) 망평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鐵嶺 新臺子鎮 故城(孫進己, 1989, 앞의 책, 191·192쪽), 新民 前當堡 鎮 大古城子(동아시아교통사연구회, 2020, 앞의 책, 87쪽)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

71) 孫進己, 1989, 앞의 책, 203쪽.

72) 盧泰敦, 1990, 앞의 논문, 50·51쪽.

73) 楊守敬, 1904, 『前漢地理圖』, 觀海堂 ; 박대재, 2017, 앞의 논문, 51~54쪽.

74) 李丙燾, 2012, 앞의 책, 264~271쪽 ; 吳江原, 1998, 「古朝鮮의 溟水와 沛水」, 『江原史學』 13·14合輯, 80·81쪽.

75) 『漢書』 지리지에 溟水와 沛水가 구분되어 보이는 점과 관련하여 고조선의 후퇴로 패수의 명칭이 이동하였고, 前漢 말기부터는 요동지역의 패수를 대동강 유역의 고조선 중심지에 가까운 패수와 구별하기 위해 沛水와 溟水로 기재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서영수, 1996, 앞의 논문, 103·104쪽).

76) 溟水(沛水)를 혼하로 본 것은 『史記』 조선열전과 같은 사건을 전하는 後漢代 荀悅의 『漢紀』에 ‘遼水を 塞로 삼았다.’라는 구절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서 遼水是 小遼水, 즉 渾河를 가리킨다(金南中, 2001, 앞의 논문, 15~17쪽).

77) 박준형, 2012, 앞의 논문, 18~20쪽. 연청설의 입장에서 番汗縣의 위치를 혼하 중·상류의 심양 지역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서영수, 2008, 「요동군의 설치와 전개」,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35·36쪽 ; 조원진, 2020, 앞의 논문, 50쪽).

하 하구 지역은 塞外와 관련짓기 어렵다는 점에서 番汗의 위치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沛水=혼하설은 비교적 최근에 제기된 설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일찍이 조선 후기 成海應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⁷⁸⁾ 성해응은 滿番汗을 番汗과 관련지어 보고 서광의 注를 토대로 番汗을 진번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沛水는 小遼水 즉 혼하로 파악하여 塞外와 인접한 소요수가 발원하는 長嶺(渾河·柳河의 분수령) 부근을 眞番의 경계로 보았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番汗(진번)을 철령·개원 지역으로 비정하였는데, 番汗이 沛水의 서쪽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과도 부합한다.⁷⁹⁾

燕 공격의 중점을 혼하 서쪽의 요북 지역으로 본다면 고고학적 자료와 연결되는 면이 있다. 『史記』 조선열전에 따르면 燕은 진번을 침공한 후 ‘鄣塞’를 설치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요하~혼하 사이에서 발견된 燕 유적이 주목된다. 燕과 관련된 유적으로는 瀋陽 故宮 지하의 古城址를 비롯한 熱鬧路 戰國墓와 烽燧 유지,⁸⁰⁾ 鐵嶺 邱臺 유적,⁸¹⁾ 길림성 梨樹縣 二龍湖古城址 등이 있다.⁸²⁾ 해당 유적들은 주로 요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鄣塞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⁸³⁾

이상의 검토에 의하면 燕의 공격지점은 요하와 혼하 사이 심양-철령과 관련된 요북 지역이며, 이곳이 곧 진번이 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고조선은 燕의 침공으로 바로 이 지역을 상실한 것이다. C-1의 기록으로 보면 이때 진번이 燕의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史記』 조선열전에는 이후에도 진번이 확인되므로 이때 진번은 일부의 영역만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진번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인 應劭의 注가 주목된다. 『漢書』 지리지 玄菟郡條에는 ‘故眞番朝鮮胡國’, 『史記索隱』에는 ‘玄菟本眞番國’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 중 應劭의 原注는 『漢書』 지리지에 기재된 注일 것으로 이해된다.⁸⁴⁾ 한편 應劭가 붙인 주의 의미와 관련하여 『漢書』 지리지에는 玄菟郡 외에도 여러 군현에 유사한 형태의 注가 있어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

【표3】 『漢書』 地理志의 郡·縣 아래 옛 국명을 기재한 應劭 注

78) 『研經齋全集』 卷15 沔水辨.

79) 清代 呂吳調陽은 『漢書地理志詳釋』에서 沛水를 혼하로 보고, 番汗의 위치는 혼하와 소자하의 합류 지점인 界蕃城(지금의 新賓縣 鐵背山 부근)으로 비정하였다(呂吳調陽, 『漢書地理志詳釋』(二十五史刊行委員會編, 1955, 『二十五史補編』, 中華書局出版, 1236쪽).

80) 李曉鍾, 2007, 「瀋陽地區戰國秦漢考古初步研究」, 『瀋陽考古文集』 1, 229~233쪽.

81) 鐵嶺市文物管理辦公室, 1996, 「遼寧鐵嶺市邱台遺址試掘簡報」, 『考古』 1996-2, 50쪽.

82) 吳江原, 2010, 「戰國時代 燕나라 燕北長城 동쪽 구간의 構造的 실체와 東端」, 『先史와 古代』 33, 196쪽.

83) 吳江原, 2010, 앞의 논문, 196~198쪽 ; 公석구, 2014, 「『中國歷史地圖集』의 戰國時期 燕 長城 고찰」, 『白山學報』 99, 173~174쪽.

84) 尹龍九, 2017, 「『史記』·『漢書』 注文의 ‘古朝鮮’ 관련 기사」, 『韓國古代史研究』 85, 178쪽 ; 박대재, 2017, 앞의 논문, 28~30쪽.

郡名	縣名	應劭의 注
汝南郡	平輿	應劭曰 故沈子國
	西平	應劭曰 故柏子國也
	安陽	應劭曰 故江國
犍爲郡	-	應劭曰 故夜郎國
	犍道	應劭曰 故犍侯國也
越嶲郡	-	應劭曰 故邛都國也
益州郡	-	應劭曰 故滇王國也
牂柯郡	故且蘭	應劭曰 故且蘭侯邑也
	漏臥	應劭曰 故漏臥侯國
	夜郎	應劭曰 故夜郎侯邑
	句町	應劭曰 故句町國
鴈門郡	樓煩	應劭曰 故樓煩胡地
代郡	-	應劭曰 故代國
遼西郡	令支	應劭曰 故伯夷國
玄菟郡	-	應劭曰 故眞番朝鮮胡國
	高句驪	應劭曰 故句驪胡
樂浪郡	-	應劭曰 故朝鮮國也

【표3】에서 보이듯이 응소는 특정 군현 아래 설치되기 이전 존재했던 國의 명칭을 적었다. 응소가 기재한 國의 존재 시기는 西周~漢代에 걸쳐 나타나 일정하지 않다. 다만 군현이 설치되기 이전 그 지역에 존재한 국이라는 점은 대체로 명확하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해보면 응소의 注는 ‘眞番朝鮮’과 관련지을 수 있다. 故眞番朝鮮胡國은 대체로 ‘옛 眞番은 朝鮮의 胡國이다.’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표3】에 제시된 응소 注에는 주로 하나의 國 혹은 세력명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옛 眞番朝鮮의 胡國이다.’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응소의 注는 위만조선 이전에 존재했던 眞番朝鮮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마정이가 『史記索隱』에서 응소의 注를 축약하면서 ‘本眞番國’이라 한 것도 眞番朝鮮 즉, 진번을 고려하여 서술한 것이라 추정된다. 이처럼 응소가 玄菟郡條에 眞番을 기재한 것은 玄菟郡이 옛 진번과 관련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양자가 관련되었다는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⁸⁵⁾

응소가 注를 단 『漢書』 지리지의 玄菟郡은 第2玄菟郡을 가리킨다. 여기서 第2玄菟郡은 第1玄菟郡이 夷貊의 침입으로 인해 밀려나 지금의 소자하 유역에 설치된 것으로 이해된다.⁸⁶⁾ 따라서 응소의 注를 진번의 위치와 관련지을 수 있다면 燕의 침입 후에도 진번은 요동 동부의 산간지방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고학적으로 燕의 침공 이후 고조선과 관련된 물질문화의 분포로도 뒷받침된다. 燕의 진출 이후 요동지역의 물질문화는 本溪 上堡村을 비롯한 新賓·桓仁 등의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보촌 유형’이 주목된다. 상보촌 유형에서는 燕의 침공 이전 고조선의 물질문화와 관련된 심양을 중심으로 한 정가와자 유형을 계승하는 동검과 다뉴조문경, 점토대토기 등이 공반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 때문에 상보촌 유형을 燕의 침공 이후 고조선의 물질문화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⁸⁷⁾

85) 조원진, 2021, 앞의 논문, 170쪽.

86) 池内宏, 1941, 「樂浪郡考附說遼東の玄菟郡と其の屬縣」,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第16冊, 東京帝國大學文學部 ; 1951, 『滿鮮史研究』 上世 第一冊, 吉川弘文館, 76~79쪽 ; 田中俊明, 1994, 「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 『朝鮮文物研究』 1, 20~43쪽.

87) 趙鎮先, 2014, 「中國 東北地域の 青銅器文化와 古朝鮮의 位置 變動」, 『東洋學』 56, 126쪽 ; 이후

종합하면 진번은 대체로 혼하(沛水) 상류 양안을 중심으로 한 요동지역에 분포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번이 위치했던 혼하 양안의 요동지역은 중국과 교통할 수 있는 요지이기도 하였다. 요동 지역은 산둥반도 齊와 연결되는 경로로서 내륙 교통의 중심 거점인 심양을 중심으로 한 ‘혼하-요하-대련’으로 이어지는 수로 교통로가 상정되기도 하며,⁸⁸⁾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혼하-소자하-부이강-혼강’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형성되어 있다.⁸⁹⁾ 이처럼 진번은 고조선과 중국 사이 요동지역의 주요 교통로에 위치하면서 중국과의 교류에 거점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燕의 침공이 고조선과 戰國 齊와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⁹⁰⁾ 燕의 沛水(혼하) 서안을 중심으로 한 요북 지역 침공은 그 목적과도 부합한다. C-1에서 燕의 침공 후 고조선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그 서방의 진번이 沛水(혼하) 서쪽의 영역을 상실하고 동쪽의 산간지방으로 위축된 상황을 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위만의 집권 과정과 眞番의 이동

3장에서는 燕의 침공으로 인해 고조선의 서방세력이었던 진번이 沛水의 서쪽 영역을 상실하고 동쪽으로 위축되었던 양상을 살펴보았다. 燕은 기원전 222년 秦의 전국 통일과정에서 멸망하였다. 이제 고조선은 秦과 경계를 접하게 된 것이다.

D. 秦이 이미 天下를 병합하고, 동쪽으로 沛水를 끊어 朝鮮을 멸하였고, 남쪽으로는 陸梁을 취하였으며, 북쪽으로는 胡狄를 물리치고, 서쪽으로는 氐와 羌을 경략하여 帝號를 세우고 四夷가 조공하게 하였다.⁹¹⁾

사료 D는 秦이 6국을 통일한 후 고조선과 燕의 경계였던 沛水를 끊어 고조선을 공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史記』 조선열전에는 秦이 眞番朝鮮을 ‘遼東外徼’에 속하게 하였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秦이 속하게 한 遼東外徼와 진번의 위치가 상호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秦이 속하게 한 遼東外徼는 위만의 망명지인 秦의 옛 空地인 상하장과 연결된다. 『史記』 조선열전에 따르면 漢은 秦의 遼東外徼에서 涘水로 후퇴하여 遼東故塞를 수리해 고조선과 경계로 삼았다.⁹²⁾ 이후 위만이 涘水を 건너 秦의 옛 공지인 상하장에 머물렀으므로 遼東外徼와 상하장은 秦 시기 설치된 동일한 시설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秦이 진번을 요동군이 아닌 ‘外徼’에 속하게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秦은 기원전

석, 2017, 「上堡村類型的 변천과 성격」, 『고고학』 16-2, 55~60쪽.

88) 박준형, 2006, 「古朝鮮의 海上交易路와 萊夷」, 『北方史論叢』 10, 172~173쪽.

89) 동아시아교통사연구회, 2020, 앞의 책, 83~85쪽.

90) 박대재, 2006, 앞의 논문, 27~28쪽.

91) 『鹽鐵論』 卷8 誅秦. “秦既并天下 東絕沛水 竝滅朝鮮 南取陸梁 北卻胡狄 西略氐羌 立帝號 朝四夷.”

92) 『史記』 卷115 朝鮮列傳. “秦滅燕 屬遼東外徼 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涘水爲界 屬燕.”

221년 6國을 통일한 뒤 36개의 郡을 두었다.⁹³⁾ 『水經注』에는 秦이 燕을 멸망시키고 요동군을 두었다고 하여,⁹⁴⁾ 요동군은 본래 燕의 영역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원전 215~213년 秦은 주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⁹⁵⁾ 사료 D에서도 확인되듯이 이 시기 고조선 침공도 함께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秦의 요동군과 요동외요의 설치 시기는 구분해야 한다. 즉 요동군은 기원전 221년 燕의 영역인 沛水의 서쪽에 설치되었고, 이후 沛水를 건너 고조선을 공격하여 요동군 영역 바깥에 외요를 두면서 ‘요동외요’라 칭한 것이다,

外徼는 조선열전 외에 용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漢書』 흉노전에는 漢 武帝 시기 五原塞 이북의 匈奴 영토에 ‘亭鄣’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⁹⁶⁾ 여기서 亭鄣은 당장 군현 설치와 관리 파견이 어려운 곳에 두어져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한 군사 전진기지로서 이해된다.⁹⁷⁾ 즉 遼東外徼 역시 漢이 匈奴 지역에 설치한 亭鄣과 유사한 군사적 전진기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⁹⁸⁾ 특히 亭鄣은 위만의 망명지로 기재된 상하장과 연결하여 볼 여지가 있다. 종래 연구에서 상하장은 위만의 망명지로서 그 위치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었다. 특히 상하장이 溟水를 건너 고조선의 영역에 있었다는 점에서 溟水가 어느 강인가가 위치 비정의 주요 쟁점이 되어왔다.⁹⁹⁾ 그러나 상하장의 위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변경의 수비 시설인 鄣의 특징도 고려되어야 한다. 『史記索隱』에서는 徼가 곧 亭鄣으로 서로 유사한 성격의 변경 수비 시설이라 하였다.¹⁰⁰⁾ 여기서 鄣은 적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축조된 보초대 형태로 방어선의 최말단에 해당한다.¹⁰¹⁾

『史記』 진시황본기에 따르면 秦은 匈奴를 河南의 땅에서 몰아내고 황하 선에는 塞, 강을 건너 산간지역에는 亭鄣을 설치하였다.¹⁰²⁾ 여기서 산간 지역에 亭鄣이 설치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강 주변에 塞가 설치된 것과 달리 고궐·양산과 같은 산간지대에 鄣을 설치한 것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초소의 성격에 방어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¹⁰³⁾

93) 『史記』 卷6 秦始皇本紀 始皇 26年. “秦初并天下 … 分天下以爲三十六郡.”

94) 『水經注』 卷14 大遼水. “秦始皇二十二年 滅燕置遼東郡.”

95) 『史記』 秦始皇本紀에는 始皇 32~34년(기원전 215~213) 사이 匈奴와 남월 지역을 공격하여 匈奴를 河南 이북으로 몰아냈으며, 남월에는 3郡을 설치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동월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晉書』 지리지에는 동월 지역의 閩中郡에 설치 연대를 남월 3郡과 동시기로 기재하고 있어 秦의 동월과 남월 공격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后曉榮, 2009, 『秦代政區地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88~90쪽).

96) 『漢書』 卷94上 匈奴傳. “句黎湖單于立 漢使光祿徐自爲出五原塞數百里 遠者千里 築城障列亭至盧胸 … 其秋 匈奴大入雲中定襄五原朔方 殺略數千人 敗數二千石而去 行壞光祿所築亭障.”

97) 洪承賢, 2018, 「燕·秦·漢長城 수축을 통해 본 衛滿朝鮮의 西界」, 『韓國史學報』 70, 23~24쪽.

98) 遼東外徼에 대해 秦의 邊塞와 고조선의 국경지대 사이 일종의 완충지대에 설치된 치안 관리 시설로 이해하기도 한다(宋眞, 2014, 「戰國·秦·漢時期 遼東郡과 그 경계」, 『韓國古代史研究』 76, 79~81쪽).

99) 상하장의 범위는 溟水의 비정에 따라 ‘청천강~대동강’ 사이(李丙燾, 2012, 앞의 책, 270~271쪽), ‘압록강~청천강’ 사이(盧泰敦, 1990, 앞의 논문, 29~31쪽), ‘혼하~압록강’ 사이(서영수, 1996, 앞의 논문, 103쪽 ; 박준형, 2012, 앞의 논문, 29~31쪽)로 보는 견해가 있다.

100) 『史記』 卷91 黠布列傳 分卒守徼乘塞 注. “【索隱】徼謂邊境亭鄣 以徼繞邊陲 常守之也.”

101) 洪승현, 2012, 「중국과 일본 학계의 燕·秦·漢長城 연구와 추이」, 『동북아역사논총』 35, 348쪽.

102) 『史記』 卷6 秦始皇本紀 始皇 33年. “西北斥逐匈奴 自榆中並河以東 屬之陰山 以爲四十四縣 城河上爲塞 又使蒙恬渡河取高闕陽山北假中 築亭障以逐戎人.”

103) 洪승현, 2017, 「중국 고대 長城 개념과 역할 -秦漢時期 장성을 중심으로-」, 『史林』 62, 21쪽.

匈奴 지역 鄣의 특성은 비슷한 시기에 설치된 상하장과 비교할 수 있다. 진번이 위치한 지역은 요동 동부의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소자하, 부이강과 같은 강이 흘러 자연 지형을 이용하기 쉬웠다. 즉 진번 지역은 자연 지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말단의 방어시설인 鄣이 설치된 것이다. 따라서 遼東外徼(上下鄣)의 설치지점과 眞番의 위치는 부합한다고 여겨진다. 이렇듯 진번 지역에는 秦의 수비 시설이 설치되면서 일정한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¹⁰⁴⁾

그러나 秦이 진번에 영향력을 미친 기간은 길지 않았다. 진시황 사후 중국의 혼란은 주변 이민족의 이탈을 초래하였다. 『鹽鐵論』에는 이 시기 고조선이 秦의 遼東外徼를 공격했음을 보여주는 기사가 있다.¹⁰⁵⁾ 이때 고조선은 진번 지역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이 되찾은 서방 지역은 중국의 혼란을 피해 많은 유이민이 유입된 지역이기도 하였다.¹⁰⁶⁾

기원전 195년 위만은 溟水를 건너 상하장, 즉 진번 지역에 망명하였다. 종래 위만의 집권과 관련해서는 그의 출신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왔다.¹⁰⁷⁾ 또한 위만의 집권에는 고조선계 토착 세력과 중국계 유이민이 주요 기반을 이루었다고 이해된다.¹⁰⁸⁾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만의 집권과 그 과정에서 보이는 진번의 존재에는 그다지 주목해보지 않았다.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한 이후의 과정은 『魏略』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史記』 조선열전과 비교된다.

【표4】 『史記』 조선열전과 『魏略』에 보이는 위만의 집권 과정

104) 최근 서역 누란에 배치된 서역장사가 누란을 통치하지 않고, 군사적 임무만을 수행한 사례를 통해 요동외요의 성격을 검토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이 연구에서는 서역의 사례와 같이 요동외요 또한 별도의 관리가 배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임무만 수행했을 뿐 국정은 별도로 운영되었다고 이해하였다(송진, 2022, 「전국~전한시기 遼東郡의 경계형태와 대외 교통로」, 『中央史論』 55, 245·246쪽).

105) 『鹽鐵論』 卷7 備胡. “大夫曰 往者 四夷俱强 并爲寇虐 朝鮮踰徼 劫燕之東地 東越越東海 略浙江之南 南越內侵 滑服令 氏熒冉駘騫唐昆明之屬 擾隴西巴蜀.”

106) 『三國志』 卷30 魏書30 烏桓鮮卑東夷傳 韓 所引 魏略. “二十餘年而陳項起 天下亂 燕齊趙民愁苦 稍稍亡往準 準乃置之於西方.” ; 『三國志』 卷30 魏書30 烏桓鮮卑東夷傳 滅. “陳勝等起 天下叛秦 燕齊趙民避地朝鮮數萬口.”

107) 위만의 출자에 대해서는 중국계로 보거나(三上次男, 1966,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5쪽 ; 송호정, 2003, 앞의 책, 389·390쪽), 고조선계로 보는 관점(李丙燾, 1956, 앞의 논문, 15·16쪽 ; 서영수, 1996, 앞의 논문, 92~99쪽)이 있다.

108) 서영수, 1996, 앞의 논문, 92~99쪽 ; 金南中, 2004, 「衛滿朝鮮의 王權과 地方統治體制」, 『韓國古代史研究』 33, 145·146쪽.

	『史記』 조선열전	『魏略』
① 위만의 망명	燕王 盧綰이 반하여 匈奴로 들어가자 滿도 망명하였는데 무리 천여 인을 취하여 상투를 틀고 蠻夷의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달려 塞를 나와 淇水를 건너 秦의 옛 空地인 상하장에 거하였다.	盧綰이 반하여 匈奴로 들어가자 燕人 衛滿도 망명하여 오랑캐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溟水를 건너 準에게 이르러 항복하면서 서쪽 변방에 거하도록 해주면 중국의 망명자를 거두어 조선의 藩屏이 되겠다고 설득하였다. 準은 그를 믿고 사랑하여 博士에 임명하고 圭를 하사하며, 百里的 땅을 봉해 주어 서변을 지키게 하였다.
② 세력 확장	점차 眞番朝鮮蠻夷와 옛 燕·齊 망명자들을 役屬하였다.	滿이 망명자들을 유인하여 그 무리가 점점 많아졌다.
③ 위만의 집권	그들의 왕이 되어, 王險에 도읍하였다.	(滿이) 사람을 準에게 파견하여 속여서 말하기를, “漢의 군대가 열 군데로 쳐들어오니, 들어가 숙위하길 청합니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되돌아서서 準을 공격하였다. 準은 滿과 싸웠으나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먼저 ①은 위만의 망명 과정을 보여준다. 준왕은 위만이 무리 천여 인을 거느리고 淇水를 건너 상하장에 망명하자 그를 博士에 임명하고 고조선의 서방 지역에 分封하였다. 여기서 위만이 준왕에게 받은 박사는 해당 지역의 主宰權을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변방의 제후와 유사한 작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¹⁰⁹⁾ 이를 기반으로 위만은 고조선의 서방에서 세력을 키워나갔다.

②는 위만이 서방에 머물면서 세력을 확장해 간 과정을 보여준다. 『魏略』에는 위만이 망명자만을 유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史記』에서는 고조선과 관련된 진번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즉 위만은 고조선의 토착세력인 진번과 중국계 유민을 거두어 세력을 확장한 것이다. 이후 고조선의 서방에서 세력을 규합한 위만은 ③에서 고조선의 중심지인 평양에 있던 준왕을 몰아내고 王險에 도읍하면서 집권한다.

한편 망명 이후 위만과 진번의 관계와 관련하여 『史記』 조선열전에는 위만 집권으로 진번이 두 차례 ‘役屬’, ‘服屬’되었다는 기사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동일 대상에 대한 ‘屬’의 차이를 간단히 무시할 수는 없다.¹¹⁰⁾ 먼저 위만 집권 이전 세력 규합 과정에서 나타난 ‘役屬’에 대해 살펴보겠다. 『史記』에는 役屬과 관련하여 비교할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E-1. 佗는 이때를 틈타 군대를 동원하여 (漢의) 변방을 위협하는 한편, 민월과 서구, 낙 등에는 재물을 보내 이들의 환심을 사서 役屬하니, 이로써 남월은 동서로 만여 리나 되었다.¹¹¹⁾

109) 박대재, 2015, 「고조선의 정치체제」, 『동북아역사논총』 47, 74~79쪽.

110) ‘屬’의 사례에 대해 『史記』 조선열전의 ‘役屬眞番朝鮮蠻夷’에서 보이는 ‘眞番’은 北眞番, 이후 위만조선 시기에 服屬된 ‘眞番’은 南眞番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千寬宇, 1989, 앞의 책, 169·170쪽).

111) 『史記』 卷113 南越列傳. “佗因此以兵威邊 財物賂遺閩越西甌駱 役屬焉 東西萬餘里.”

E-2. (蜀의 상인이 唐蒙에게 말하기를) 남월은 재물을 가지고 夜郎을 役屬하여 (그 영향력이) 서쪽으로 同師에 이르지만, 또한 신하로 부리지는 못합니다.¹¹²⁾

E-3. (張騫이 천자에게 아뢰기를) 條枝는 安息의 서쪽으로 … 안식이 이들[條枝]을 役屬하고 있으나 외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¹¹³⁾

E-1·2는 남월이 주변 세력을 役屬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두 기사 모두 ‘役屬’과 ‘財物’이 짝하여 확인된다는 것이다. 즉 役屬은 재물 등으로 특정 대상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E-2·3에서 신하로 부리지 못한다거나, 외국으로 여긴다는 것은 役屬 단계에서의 영향력에 한계를 보여준다.

이 같은 役屬의 형태는 조선열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위만은 망명 세력으로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진번과 유이민을 무력으로 장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 인해 위만은 함께 망명해 온 무리 천여 인과 재물 등을 통한 회유를 기반으로 진번과 중국계 망명인을 役屬하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간 것이다.

한편 위만은 집권 이후 漢의 外臣이 되면서 兵威財物을 얻어 본격적인 정복 활동을 시작한다. 『史記』 조선열전에는 위만이 주변 小邑을 침략하자, 진번과 임둔이 스스로 와서 服屬하였다고 전한다. 앞서 위만은 집권 이전 진번을 이미 役屬하였기에 집권 후 服屬하였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역시 『史記』의 服屬과 관련된 사례와 비교해 볼 수 있다.

F-1. (張騫이 천자에게 아뢰기를) 烏孫은 … 예전에 匈奴에 服屬했는데, (힘이) 강성해지자 匈奴에게 羈屬을 취하면서도 朝會에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¹¹⁴⁾

F-2. 烏孫은 나라가 나뉘어 있었고 … 匈奴에 오랫동안 服屬해 왔으며 또한 그들에게 근접해 있다.¹¹⁵⁾

사료 F는 대원열전에 보이는 服屬의 사례이다. F-1·2는 服屬의 용례에서 나아가 某+屬의 의미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오손이 匈奴에 복속한 것은 F-1의 ‘힘이 강성해지자’라는 표현과 연결하면 상대적으로 국력이 부족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服屬은 주로 군사적 정벌 혹은 국력의 우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F-1에는 같은 구절에서 服屬과 羈屬의 표현이 동시에 등장한다. 匈奴에 복속했던 烏孫이 힘이 강성해지자 羈屬을 취하면서 朝會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羈屬이 服屬에 비해 느슨한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구절에 표기된 某+屬의 용례는 대상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史記』 조선열전에 기재된 役屬과 服屬의 사례에도 시사점을 준다. 屬의 표현에 따른 구속력에 차이를 염두에 둔다면 위만은 망명 후

112) 『史記』 卷116 西南夷列傳. “南越以財物役屬夜郎 西至同師 然亦不能臣使也.”

113) 『史記』 卷123 大宛列傳. “條枝在安息西 … 而安息役屬之 以爲外國.”

114) 『史記』 卷123 大宛列傳. “烏孫 … 故服匈奴 及盛 取其羈屬 不肯往朝會焉.”

115) 『史記』 卷123 大宛列傳. “烏孫國分 … 素服屬匈奴日久矣 且又近之.”

고조선의 서방에서 진번을 役屬하여 세력을 키웠고,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한 뒤 병위재물을 기반으로 服屬하면서 강한 영향력 아래 둔 것이다.

다만 위만이 役屬·服屬했던 시기에 진번이 같은 위치에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앞서 진번은 燕~漢初에 걸쳐 고조선의 서방 지역에 위치하였고 위만이 망명하여 규합한 세력 중 하나였다. 한편 위만 집권 이후에는 A-④의 ‘眞番旁衆國’ 사례를 제외하고 진번이 위만조선 중심지의 남쪽에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G. 燕은 渤海와 碣石 사이의 한 변화한 곳인데 … 北으로는 烏桓·夫餘와 접하고, 東으로는 穢貉·朝鮮·眞番에서 이익을 얻는다.¹¹⁶⁾

사료 G는 『史記』 화식열전의 기사로 燕의 경제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서술하고 있다. 이 기사는 대체로 전한 시기의 실상을 반영한다고 이해된다.¹¹⁷⁾ 특히 여기서는 穢貉·朝鮮·眞番이 개별적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 기재 순서는 燕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를 따르면 진번은 燕과 가장 먼 지역에 위치하게 된다. 즉 전한 시기에는 진번이 위만조선의 남방지역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앞서 A-④의 眞番旁衆國은 右渠 시기의 상황을 전하는 기사였다. 그렇다면 진번의 이동은 전한 시기를 기준으로 위만이 서방에서 진번을 役屬한 이후부터 늦어도 右渠가 집권한 시기 사이로 추정된다.

이처럼 위만이 집권한 이후부터 우거왕 시기 사이에 진번의 이동이 있었다면 그 계기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진번이 고조선의 세력권에 속해 있었고, 그 이동 경로가 요동에서 고조선의 중심지를 넘어 황해도 지역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계기 없이 남하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史記』 조선열전에서 위만의 망명 시기 진번이 고조선의 서방에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진번은 『魏略』에서 준왕이 위만에게 내려준 서번 100리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진번의 이동 계기를 찾는다면 고조선에서 위만조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가 주목된다. 이 시기는 고조선이 진번 지역을 漢으로부터 되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만이 망명하자 준왕이 그에게 서방 지역의 통제를 맡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달리 위만과 진번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특히 이 시기는 위만이 진번을 ‘役屬’하고 있던 단계였다. 앞서 役屬은 비교적 영향력이 강하지 않고 재물 등으로 상대를 포섭하는 형태였음을 보았다. 나아가 위만은 진번을 役屬하는 과정에서 재물 등의 요소뿐만이 아닌 또 다른 이해관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토착민에 대한 일방적 지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피지배자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합의를 통해 새로운 지배자의 교체를 용인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견해가 있다.¹¹⁸⁾ 이로 볼 때 위만은 진번의 이익을 보장하는 합의를 통해 자신의 기반 세력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위만의 입장에서 진번의 이동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는 위만이 집

116) 『史記』 卷129 貨殖列傳. “夫燕亦勃碣之間一都會也 … 北鄰烏桓夫餘 東綰穢貉朝鮮眞番之利.”

117) 千寬宇, 1989, 앞의 책, 173·174쪽 ; 최슬기, 2017, 앞의 논문, 67쪽.

118) 金翰奎, 1980, 앞의 논문, 133쪽.

권하는 과정 중 마주한 대내외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대내적인 측면에서 위만의 집권 과정이 고려된다. 위만은 결과적으로 고조선의 중심지를 공격하여 그 지역에 도읍을 세웠다. 이때 위만이 서방에서 거느렸던 세력은 주요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기반 세력 중 하나인 진번은 위만과 함께 고조선의 중심지를 공격하기 위해 남하하였고, 정권 탈취에 성공하면서 도읍인 王險城 주변에 정착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魏略』에 위만이 준왕을 몰아낸 후에도 그의 아들과 친척이 남아있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봤을 때,¹¹⁹⁾ 준왕 관련 세력은 위만 집권 이후에도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만이 처음부터 고조선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 초기는 불안정하였을 것이다.¹²⁰⁾ 이에 위만은 진번을 도읍과 가까운 황해도 주변에 정착시킴으로써 집권 후 기반을 강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외적 측면에서는 위만 집권 당시 국제정세, 특히 漢과의 관계가 주목된다. 위만의 망명 전후 시기는 漢과 匈奴의 대결에서 匈奴가 우세를 점하던 시기였다. 흉노는 冒頓單于 이후 영역확장을 펼치면서 漢을 압박하였다. 漢은 기원전 200년 평성 전투에서 흉노에게 대패하면서 화친 전략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漢과 흉노 사이에서 고조선의 존재는 중요했다. 고조선은 지리상 북쪽으로 흉노, 서쪽으로는 漢과 접해 있었기 때문에 漢-匈奴 간 전쟁 시에 전세를 좌우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¹²¹⁾

당시 위만의 망명지이자 진번이 위치한 요동지역은 고조선이 漢·흉노와 연결될 수 있는 지리상의 요지에 있어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하였다.¹²²⁾ 위만은 기원전 195년 망명한 뒤 약 3~4년 후 집권을 이룬 것으로 이해된다.¹²³⁾ 이 시기 漢은 흉노와 화친 관계를 맺었고, 惠帝 즉위(기원전 195년) 이후부터는 안정된 시기에 접어들었다.¹²⁴⁾ 더군다나 燕王 盧綰이 반란을 일으키고 흉노로 망명하자 漢은 周勃을 보내어 요동군을 평정하면서¹²⁵⁾ 요동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외적 상황 속에서 요동 지역에 위치한 위만은 漢과 우호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다. 위만이 중국에서 넘어온 유이민 세력이었다는 점에서 漢의 목인이나 동이가 없었다면 기존의 고조선 세력을 무너뜨리고 집권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漢의 입장에서 역시 요동 지역은 중요했다. 이곳은 과거 秦에 의해 遼東外徼가 설치되었던 지점이었다. 무엇보다 고조선과 흉노의 연결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요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漢에게는 고조선보다는 중국과 관계된 망명 세력인 위만이 집권하는 것이 요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나 흉노를 견제하기에 더 유리했을 것이다.

119) 『三國志』卷30 魏書30 烏桓鮮卑東夷傳 韓 所引 魏略, “其子及親留在國者 因冒姓韓氏.”

120) 조원진, 2017, 앞의 논문, 69쪽.

121) 이춘식, 2020, 『고대 중국의 패권전략과 주변국 조공화』,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6·27쪽.

122) 오현수, 2018, 『『史記』 「조선열전」 기재 ‘秦故空地上下鄣’에 대한 검토』, 『韓國史學報』 70, 64~67쪽.

123) 荊木計男, 1985, 「衛滿朝鮮王冊封について-前漢帝國遼東郡からのアプローチ-」, 『朝鮮學報』 11, 20·21쪽.

124) 권민균, 2020, 「漢初 鼂錯의 改革과 對 匈奴 政策의 변화」, 『인문사회과학연구』 21, 358~360쪽.

125) 『史記』卷57 絳侯周勃世家. “燕王盧綰反 勃以相國代樊噲將 擊下薊 得綰大將抵丞相偃守陘太尉弱御史大夫施屠渾都 破綰軍上蘭 復擊破綰軍沮陽 追至長城 定上谷十二縣 右北平十六縣 遼西遼東二十九縣 漁陽二十二縣.”

이러한 배경에서 위만과 漢 사이에 요동지역을 두고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상정된다. 특히 위만이 머물렀던 진번 지역이 이전에 秦의 遼東外徼(상하장)가 설치되었던 지점임을 염두에 둔다면, 漢은 이곳을 다시 회복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秦이 外徼를 설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漢은 위만이 있던 요동 지역을 일종의 군사기지로 삼아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결국 위만은 漢의 요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의도를 받아들이면서 漢의 목인 내지 도움을 얻어 안정적인 상황에서 집권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만은 자신의 기반 세력을 거느리고 고조선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자 했으므로 漢의 요구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었다. 위만이 집권 이후 漢의 外臣이 되어 兵威財物을 얻을 수 있었던 점도 漢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양자의 우호적 관계는 위만 집권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史記』 조선열전에는 위만조선이 兵威財物을 받은 이후 주변국의 入朝를 막는 등 비우호적인 양상이 나타난다.¹²⁶⁾ 또한 『史記』 律書에는 文帝 시기에 장군 陳武가 남월과 조선 정벌을 건의한 기록이 확인되는데,¹²⁷⁾ 陳武의 발언과 관련하여 文帝 이전 남월의 동향이 주목된다. 남월은 漢이 국경에서 이루어지던 철기 교역을 중단하자 스스로 稱帝하고, 漢의 長沙國을 공격하는 등 적대적 행동을 드러냈다.¹²⁸⁾ 진무의 남월 공격 건의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로 보면 위만조선 역시 진무의 발언 이전 漢에 적대적 행동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漢은 이후 위만조선을 흉노의 左臂로 인식했고,¹²⁹⁾ 위만조선은 흉노와 요동지역을 매개로 가축 교역을 했던 정황이 확인된다.¹³⁰⁾ 이렇듯 위만조선은 요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흉노와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위만은 漢과의 전략적 우호 관계 속에 자신의 기반 세력인 진번과 중국계 망명인을 이끌고 고조선의 중심지를 무너뜨렸다. 이 과정에서 위만은 진번을 자신의 도움 주변인 황해도 일대에 정착시킴으로써 집권의 안정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위만 집권 이후 服屬하였다고 한 대상은 요동 지역에서 황해도로 이동한 진번이라 할 수 있다. 이동 후 진번은 『史記』 조선열전에 臨屯과 함께 위만의 복속 대상으로 나온다. 진번은 위만조선 내 대표적인 지역 세력으로 존재하였고, 훗날 4군 중 하나로 편제되었다.

임둔의 위치는 대체로 單單大嶺 以東의 함경도와 강원 북부지역으로 비정된다.¹³¹⁾ 임둔은 지리적으로 산맥이 가로막아 위만조선의 중심지와 격절되어 있고, 산천을 경계로 읍락이 할거한 지역적 특징에 따라 원심성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이해된다.¹³²⁾ 이 때문에 임둔은 위만조선 아래 복속되어 있으면서도 중심지와 밀접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반면 진번은 위만의 정치적 기반이 된 세력이었고, 지리적으로도 위만조선의 중심지와 근접해 있었다. 이에 따라 양자는 밀접한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진번은 황해도

126) 이춘식, 2020, 앞의 책, 71쪽.

127) 『史記』 卷25 律書. “歷至孝文卽位 將軍陳武等議曰 南越朝鮮自全秦時內屬爲臣子 後且擁兵阻阨 選婦觀望 … 征討逆黨 以一封疆.”

128) 『史記』 卷113 南越列傳. “高后時 有司請禁南越關市鐵器 … 於是佗乃自尊號爲南越武帝 發兵攻長沙 邊邑 敗數縣而去焉.”

129) 『漢書』 卷73 韋賢傳. “東伐朝鮮 起玄菟樂浪 以斷匈奴之左臂.”

130) 최슬기, 2017, 앞의 논문, 76~79쪽.

131) 李丙燾, 1976, 앞의 책, 195쪽.

132) 박대재, 2021, 「위만조선의 영역구조와 漢郡縣의 재편」, 『고조선단군학』 46, 126·127쪽.

지역에 자리를 잡은 뒤, 한반도 중남부와 위만조선의 교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다.¹³³⁾ 이 점은 위만조선이 漢과 진번 주변의 衆國에 왕래를 막았다는 기록(사료A-④)이나 辰國으로 간 歷谿卿 집단이 이후 朝鮮·眞番(貢蕃)과 교류하지 않았다는 기록(『魏略』)에 잘 드러난다. 특히 후자는 위만조선 시기에도 진번이 중심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위만조선 성립 후 진번은 중심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지역 세력으로서, 한반도 중남부와 교류를 매개하면서 그 입지를 다져나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진번은 새로운 지역에서도 정체성을 유지하며 상당한 규모의 정치세력으로서 존재했다. 이에 따라 漢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뒤 진번 지역에 郡을 설치했던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기원전 3세기 燕의 침공으로부터 위만 집권 시기에 고조선의 영역변천 과정과 진번의 존재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고조선 연구에서는 진번의 성격과 위치 문제를 부차적인 측면으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진번이 고조선 영역의 일부로 고조선의 특정한 사정과 결부되어 이동했음을 밝혀보았다.

기원전 3세기 이래 진번의 존재 양상은 『史記』 조선열전에 보이는 진번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2장에서 『史記』 조선열전의 ‘眞番朝鮮’은 진번을 가리키는 것임을 밝혀보았다. 眞番朝鮮은 위만 집권 이전 戰國 燕~漢初 시기에 확인된다. 『史記』 조선열전과 같은 사실을 전하는 『魏略』이 가리키는 지역적 맥락, 유사한 형태의 연칭 사례로 볼 때 ‘眞番朝鮮’은 하나의 대상으로 이해함이 적절하다.

더불어 『史記』 조선열전 초반부의 서술 의도에 초점을 두고 남월과 동월열전을 비교하였다. 『史記』 외국열전 초반부는 대상국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투영되어 있었다. 그런데 조선열전의 서술 태도는 남월과 동월에 郡이 설치되었던 것과 달리 그 영향력이 서방에 한정되어 있다. 고조선의 서방은 위만이 망명한 상하장과 연결된다. 즉 조선열전의 前史는 위만이 망명하였던 지역에 대한 연혁을 설명하기 위한 서술이었다. 종합하면 眞番朝鮮의 실체는 진번이며, 朝鮮은 진번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국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진번은 燕의 침공 이후 위만이 망명하였을 시기까지 고조선 영내의 서방 세력이었음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燕 침공 시기 진번의 위치와 영역 위축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원전 3세기 초 燕의 고조선 침공은 그 서방인 진번이었다. 이 시기 진번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燕 공격의 시점과 종점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먼저 시점은 『鹽鐵論』에 나오는 ‘度遼東’의 해석에 주목해보았다. 『史記』 흉노열전의 사례와 비교하면 ‘度遼東’은 ‘요동으로 건너가’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즉, 요하 이동의 요동 지역이 고조선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133) 김창석, 2014, 「4세기 이전 한반도 중부지역의 정치체와 정세 변동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고고학』 13-2, 43·44쪽 ; 조원진, 2021, 앞의 논문, 167·168쪽.

한편 燕 공격의 중점은 전쟁 후 양국의 경계로 기록된 ‘滿番汗’을 통해 접근해보았다. ‘滿番汗’은 대체로 『漢書』 지리지에 보이는 文縣과 番汗縣의 연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양자가 지리적으로 근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현의 이름임이 확실한 番汗에 주목하였다. 특히 番汗은 진번과 관련되어 있어 그 위치가 중요하였다. 番汗의 위치는 ‘塞外’와 ‘沛水’의 위치정보를 감안할 때 요하와 沛水(혼하) 사이에 있는 심양·철령 등의 요북 지역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결국 燕의 주된 침공 범위는 遼河~沛水(혼하)이며, 이곳이 고조선의 서방인 진번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燕의 침공으로 진번이 완전히 영역화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 진번의 위치와 관련된 또 하나의 단서는 『漢書』 地理志 玄菟郡條에 보이는 翁소의 注이다. 翁소 注의 서술방식으로 볼 때 ‘眞番朝鮮의 胡國’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는 진번에 대한 서술로 이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진번은 沛水(혼하) 양안을 중심으로 주로 요동지역에 분포하던 서방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진번이 위치한 요동지역은 고조선이 중국과 통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다. 진번은 이곳에 위치하면서 중국과의 교통에 거점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燕은 고조선과 齊의 연결을 끊고자 하였기 때문에 고조선의 서방인 진번 공격은 주로 沛水の 서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魏略』에서 燕의 침공으로 고조선이 약화되었다는 구절은 고조선의 서방인 진번이 沛水の 서쪽 영토를 상실하고 동쪽의 요동 산간지방으로 위축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위만의 집권 과정에서 진번이 황해도 지역으로 이동했음을 살펴보았다. 기원전 221년 전국을 통일한 秦은 기원전 215~213년 사이 外夷에 대한 공격 과정에서 고조선 침공을 감행하였다. 이로 인해 요동 동부 산지로 밀려난 진번에는 遼東外徼(상하장)가 설치되어 일정 기간 秦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秦末漢初의 혼란 속에 고조선은 遼東外徼 지역을 수복하였다. 이후 위만은 기원전 195년 고조선이 수복한 진번 지역에 망명하였다. 『史記』 조선열전과 『魏略』에는 위만의 집권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 고조선의 토착세력인 진번과 중국계 유이민은 위만 집권의 주요한 기반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진번의 이동은 위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고조선에서 위만조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던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위만은 집권 과정 중 대내외적인 측면에서 진번을 요동 지역에서 이동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먼저, 대내적으로 위만의 집권 과정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위만은 고조선의 서방에서 고조선의 중심지를 공격하여 집권하였다. 이때 자신의 기반세력이었던 진번과 중국계 망명자의 참여는 필수적이었다. 즉 진번은 위만의 정권 찬탈 과정에서 위만과 함께 남하하였고, 위만은 진번을 자신의 도읍인 왕함성 주변에 안치시켜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漢과의 관계에 주목해보았다. 위만의 망명지이자 진번이 있던 요동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한-흉노-고조선이 연결되는 요충지였다. 특히 漢의 입장에서 진번이 있던 요동은 과거 秦의 영향력이 미쳤다가 후퇴한 지역으로 이곳에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匈奴를 견제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보았다. 위만 역시 망명세력이었기 때문에 漢과의 관계가 중요하였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漢은 요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를 요구하였고, 고조선의 중심지를 공격하여 집권하려 했던 위만 역시 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진번은 위만 집권 과정의 대내외적 요소와 결부되어 고조선 중심지 공격 과정에서

남하하였고, 위만 집권의 안정을 위해 도읍 주변인 황해도 지역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진변은 고조선 시기 요동지역에 있던 영내의 서방 세력이었다. 이로 인해 진변은 기원전 3세기 이래 고조선과 중국과의 전쟁으로 인한 영역변천의 중심에 있었다. 이후 진변은 위만의 망명 후 기반세력이 되었다. 『史記』 조선열전에서 다른 지역 세력과 달리 진변이 강조되어 보이는 것은 열전의 서술 대상인 위만 집권과 관련된 세력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국 진변의 이동은 고조선에서 위만조선으로의 교체라는 고조선사의 중요한 사건과 함께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1. 자료

『管子』 『史記』 『鹽鐵論』 『漢書』 『說文解字』 『漢紀』 『三國志』 『後漢書』 『水經注』 『晉書』

2. 저서

김정배, 2010,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리지린, 1963, 『고조선 연구』, 과학원출판사.

박대재, 2013,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景仁文化社.

박준형, 2014,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송호정, 2003,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유 엠 부쥘, 1986, 『古朝鮮』, 국사편찬위원회.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李鍾旭, 1993, 『古朝鮮史研究』, 博英社.

이춘식, 2020, 『고대 중국의 패권전략과 주변국 조공화』,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苗威, 2019, 『箕氏朝鮮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三上次男, 1966,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孫進己, 1989, 『東北歷史地理』上, 黑龍江人民出版社.

楊寬, 1955, 『戰國史』, 上海人民出版社.

楊守敬, 1977(1921), 『晦明軒稿』上冊, 臺灣商務印書館.

王綿厚·李健才, 1990, 『東北古代交通』, 瀋陽出版社.

王綿厚·朴文英, 2016, 『中國東北與東北亞古代交通史』, 遼寧人民出版社.

遼寧省文物局, 2017, 『遼寧省燕秦漢長城資源調查報告』, 文物出版社.

二十五史刊行委員會編, 1955, 『二十五史補編』, 中華書局出版社.

張博泉, 1985, 『東北地方史稿』, 吉林大學出版社.

陳平, 1995, 『燕史記事編年會按』下冊, 北京大學出版社.

后曉榮, 2009, 『秦代政區地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3. 논문

- 高柄翊, 1970, 「中國正史의 外國列傳」,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공석구, 2014, 「『中國歷史地圖集』의 戰國時期 燕 長城 고찰」, 『白山學報』 99.
- 권민균, 2020, 「漢初 鼂錯의 改革과 對 匈奴 政策의 變化」, 『인문사회과학연구』 21.
- 권오중, 2015, 「고대 중국 正史에서의 예맥 -‘요동예맥’의 자취에 관한 검토로서-」, 『동북아역사논총』 49.
- 金南中, 2001, 「衛滿朝鮮의 領域과 王儉城」, 『韓國古代史研究』 22.
- 金南中, 2004, 「衛滿朝鮮의 王權과 地方統治體制」, 『韓國古代史研究』 33.
- 김병준, 2008, 「漢이 구성된 고조선 멸망 과정 -『사기』 조선열전의 재검토-」, 『韓國古代史研究』 50.
- 金貞培, 1997, 「초기국가의 성격」,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 金貞培, 1997, 「고조선의 변천」,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 金貞培, 2000, 「東北亞의 琵琶形銅劍文化에 대한 綜合的 研究」, 『國史館論叢』 88.
- 김창석, 2014, 「4세기 이전 한반도 중부지역의 정치체와 정세 변동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고고학』 13-2.
- 金翰奎, 1980, 「衛滿朝鮮關係 中國側使料에 대한 再檢討」, 『釜山女大論文集』 8.
- 盧泰敦, 1990,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23.
- 박경철, 2006, 「고조선·부여의 주민 구성과 종족」, 『北方史論叢』 6.
- 박대재, 2005a, 「고조선의 ‘王’과 국가형성」, 『北方史論叢』 7.
- 박대재, 2005b, 「三韓의 기원에 대한 사료적 검토」, 『韓國學報』 31.
- 박대재, 2006, 「古朝鮮과 燕·齊의 상호관계」, 『史學研究』 83.
- 박대재, 2013, 「국가형성기의 복합사회와 초기국가」, 『先史와 古代』 38.
- 박대재, 2014, 「古朝鮮과 齊의 해상교류와 遼東」, 『韓國史學報』 57.
- 박대재, 2015, 「고조선의 정치체제」, 『동북아역사논총』 47.
- 박대재, 2017, 「고조선 이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東北亞歷史論叢』 55.
- 박대재·최슬기, 2020, 「『我邦疆域考』 역주·비평(1) -朝鮮考-」, 『韓國史學報』 78.
- 박대재, 2021, 「위만조선의 영역구조와 漢郡縣의 재편」, 『고조선단군학』 46.
- 박준형, 2006, 「古朝鮮의 海上交易路와 萊夷」, 『北方史論叢』 10.
- 박준형, 2012,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중심지와 서계의 변화」, 『史學研究』 108.
- 裴眞永, 2003, 「燕昭王의 정책과 ‘巨燕’의 성립」, 『中國史研究』 25.
- 徐榮洙, 1988, 「古朝鮮의 위치와 강역」, 『韓國史市民講座』 2, 一潮閣.
- 서영수, 1996, 「衛滿朝鮮의 形成過程과 國家의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9.
- 徐榮洙, 1999, 「古朝鮮의 對外關係와 疆域의 變動」, 『東洋學』 29.
- 서영수, 2008, 「요동군의 설치와 전개」,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宋眞, 2014, 「戰國·秦·漢時期 遼東郡과 그 경계」, 『韓國古代史研究』 76.

- 송진, 2022, 「전국~전한시기 遼東郡의 경계형태와 대외 교통로」, 『中央史論』 55.
- 송호정, 2010, 「古朝鮮의 位置와 中心地 문제에 대한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58.
- 吳江原, 1998, 「古朝鮮의 沮水와 沛水」, 『江原史學』 13·14合輯.
- 吳江原, 2010, 「戰國時代 燕나라 燕北長城 동쪽 구간의 構造的 實體와 東端」, 『先史와 古代』 33.
- 오현수, 2013, 「고조선 예맥교섭망의 변동 양상 연구」, 『국학연구』 22.
- 오현수, 2015, 「『魏略』 기재 朝鮮侯와 ‘取地二千餘里’의 검토」, 『韓國史學報』 61.
- 오현수, 2018, 「『史記』 「조선열전」 기재 ‘秦故空地上下鄣’에 대한 검토 -秦故空地上下鄣의 공간적 범위와 기능-」, 『韓國史學報』 70.
- 尹龍九, 2017, 「『史記』·『漢書』 注文의 ‘古朝鮮’ 관련 기사」, 『韓國古代史研究』 85.
- 李丙燾, 1956, 「衛氏朝鮮興亡考」, 『서울大論文集』 4.
- 이준성, 2020, 「濊君南閭의 동향과 滄海郡·玄菟郡 설치」, 『白山學報』 116.
- 이후석, 2017, 「上堡村類型的 변천과 성격」, 『고고학』 16-2.
- 장병진, 2022, 「임둔·진번군의 치폐와 위치에 관한 재논의」, 『단군학연구』 47.
- 전진국, 2022, 「진번 위치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研究』 197.
- 조원진, 2017, 「위만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한 검토 -朝·漢 전쟁 이전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109.
- 조원진, 2018, 「고조선과 秦나라의 대외관계 연구」, 『사학연구』 129.
- 조원진, 2020, 「고조선과 燕나라의 전쟁과 요동」, 『先史와 古代』 62.
- 조원진, 2021, 「고대 진번의 변천 연구」, 『先史와 古代』 66.
- 趙鎮先, 2014, 「中國 東北地域의 靑銅器文化와 古朝鮮의 位置 變動」, 『東洋學』 56.
- 崔夢龍, 1983, 「韓國古代國家形成에 대한 一考察 -衛滿朝鮮의 例-」, 『金哲垞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 崔盛洛, 1992, 「鐵器文化를 통해 본 古朝鮮」, 『國史館論叢』 33.
- 최슬기, 2017, 「衛滿朝鮮과 匈奴의 ‘襪裘’ 交易」, 『先史와 古代』 52.
- 최슬기, 2021, 「蒼海郡 위치비정의 쟁점과 전제」, 『고조선단군학』 44.
- 홍승현, 2012, 「중국과 일본 학계의 燕·秦·漢長城 연구와 추이」, 『동북아역사논총』 35.
- 홍승현, 2017, 「중국 고대 長城 개념과 역할 -秦漢時期 장성을 중심으로-」, 『史林』 62.
- 洪承賢, 2018, 「燕·秦·漢長城 수축을 통해 본 衛滿朝鮮의 西界」, 『韓國史學報』 70.
- 강인숙, 1987, 「기원전 4-3세기 고조선의 서변」, 『비파형단검 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 전출판사.
- 顧銘學, 1992, 「先秦時期中朝關係問題初探」, 『韓國學論文集』 1.
- 今西龍, 1916, 「眞番郡考」, 『史林』 1-1.
- 末松保和, 1965, 「眞番郡治考」, 『靑丘史草』 1.
- 白鳥庫吉, 1913, 「武帝始建の4郡」, 『滿洲歷史地理』 1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 徐德源, 2006, 「關於朝鮮歷史地理研究中若干問題的解誤」, 『東北史地』 2006-5.
- 劉子敏, 1996, 「戰國秦漢時期遼東郡東部邊界考」, 『社會科學戰線』 1996-5.
- 李曉鍾, 2007, 「瀋陽地區戰國秦漢考古初步研究」, 『瀋陽考古文集』 1.

田中俊明, 1994, 「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 『朝鮮文物研究』 1.

池内宏, 1941, 「樂浪郡考附說遼東の玄菟郡と其の屬縣」,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第16冊, 東京帝國大學文學部 ; 1951, 『滿鮮史研究』 上世 第一冊, 吉川弘文館, 吉川弘文館.

池内宏, 1948, 「眞番郡の位置について」, 『史學雜誌』 57-2·3 ; 1951, 『滿鮮史研究』 上世 第一冊, 吉川弘文館.

鐵嶺市文物管理辦公室, 1996, 「遼寧鐵嶺市邱台遺址試掘簡報」, 『考古』 1996-2.

荊木計男, 1985, 「衛滿朝鮮王冊封について -前漢帝國遼東郡からのアプローチ-」, 『朝鮮學報』 11.

和田清, 1955, 「玄菟郡考」, 『東亞史研究』 滿洲篇, 東洋文庫.

김기민, 「3~2세기 고조선의 영역변천과 진번의 이동」에 관한 토론문

조원진(한양대 문화재연구소)

본 발표문은 기원전 3~2세기 진번의 위치와 이동시기 등을 검토한 글입니다. 진번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기록이 소략하고 관련된 물질문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진번에 대해 단독 주제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는데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진번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기한 본 연구는 학계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을 보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1. 고조선과 진번의 관계

그동안 고조선과 진번에 관계에 대해서는 고조선과 함께 燕에 맞선 연맹체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고는 『史記』朝鮮列傳의 '眞番朝鮮'이 고조선 서방의 지방세력이었다고 이해합니다. 또한 서론에서는 고조선과 진번에 관계에 대한 두가지 시각을 소개하며 진번이 고조선과 동등한 수준의 세력이었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발표자는 고조선과 진번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진번의 발전단계를 어느 정도로 이해하는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秦의 침략에 대해

발표문 5쪽에서는 秦에 대한 부왕의 조치와 『史記』조선열전의 '遼東外徼'에 유의하면 秦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언급된 것처럼 과장은 있더라도 『鹽鐵論』은 秦이 조선을 멸하였다고 했고 『魏略』에서는 부왕이 정략적으로 秦에 예속했다고 기록했습니다. 『魏略』은 부왕이 직접 조회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 秦이 고조선에 조회를 요구한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秦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을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秦이 설치한 요동외요의 위치와 秦의 진출 범위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요동군 문제

발표문 10쪽에서 燕이 침공한 고조선 지역을 검토하면서 『史記』는 군현 설치 사실을 명확하게 적었지만 匈奴列傳은 燕 5郡 설치를 고조선과 연관시키지 않았고 고조선의 경우 '鄣塞'를 설치했다는 표현에 그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燕이 5군을 설치한 대상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며 전쟁 후 국경선인 만변한이 『漢書』 지리지의 요동군 속현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燕이 침공한 조선 서방이 요동군과 무관하

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燕이 격퇴한 대상을 동호라 한 것은 燕이 격퇴한 이민족의 정체를 알 수 없었고 진·한 교체기 동호의 영역이 5군의 이북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국시기 燕이 격퇴한 대상으로 소급한 것이고, 조선의 경우 요동군 설치 이후 조선과 요동군의 영역이 구분되었다는 한대의 공간인식을 바탕으로 기술된 것이라는 연구¹⁾도 있습니다. 또한 당시 요동의 범위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4. 진번의 이동

그동안 진번이 이동했다고 볼 경우 이동 시기에 대해서는 燕의 침공이 계기였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고 혹은 예군 남려 사건 이후 황해도 일대로 이동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²⁾

발표자는 진번이 위만의 찬탈 과정에서 이동했다고 이해하며 특히 진번이 두 차례 ‘役屬’, ‘服屬’되었다는 표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役屬’은 위만이 서변 100리에 있을 때 비교적 영향력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물 등으로 진번을 포섭한 단계이고, ‘服屬’은 준왕을 몰아내고 진번을 강한 영향력 아래 두었던 단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役屬’이 비교적 영향력이 강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때 진번이 위만과 함께 고조선 중심지를 공격하기 위해 남하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발표문 20쪽에서 대외적인 진번의 이동 배경은 漢의 요동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관련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구본희, 2017, 「망각과 재창출 -사기 흉노열전에 기술된 전국 연의 영토확장과 동호-」, 『동양사학연구』 140.

2) 김남중, 2014, 『위만조선의 성립과 발전 과정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조선후기 사찰의 토지 소유와 변동

-해남 대둔사(大菴寺)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선기(동국대)

1. 머리말
2. 승인(僧人)의 사유 재산과 사전(寺田)의 형성
3. 18세기 후반 이후 승도(僧徒) 수의 추이와 사전 규모의 변동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 불교는 ‘승유억불(崇儒抑佛)’을 표방한 정책으로 쇠퇴되었다고 이해된다.¹⁾ 조선 후기 승인(僧人)과 사찰(寺刹)을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인식 또한 이러한 통념이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²⁾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승역(僧役)’이라는 국가 권력의 수탈로 승도와 사찰은 피폐해졌다’는 서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³⁾ 이와 함께 불교가 지닌 탈속적인 종교성은 그들이 영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당대의 승인과 사찰은 부를 축적하지 못한 집단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조선후기 승인과 사찰의 경제적 양상은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였다.

조선후기 승인과 사찰의 토지 소유에 관한 연구는 1962년 용주사(龍珠寺)의 토지매매문기를 소개한 연구가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⁴⁾ 이후 198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승인의 사유 전답에 관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승의 사적 토지 소유가 이루어진 시점 및 상속과 관련된 국가의 법령이 마련되었던 정황을 제시

1) ‘승유억불’이란 용어는 20세기 초에 생성된 개념이다. 이후 한·일 학자들의 연구를 거치면서 이미지가 고착화되었다. 김용태, 2018, 「조선 불교, 고려 불교의 단절인가 연속인가?」, 『역사비평』 123, 235~241쪽.

2) 사회적 측면의 통념인 승인의 ‘천인신분설’은 근래에 재조명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당대의 승인이 팔천(八賤)의 하나였다는 통설을 재고하여 여러 신분층이 수렴된 복합적 특수계층이라고 주장하였다. 손성필, 2013, 「조선시대 승려 賤人身分說의 재검토」, 『보조사상』 40.

3) 승역을 국가의 억압과 수탈로 보는 시각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오경후, 2005, 「朝鮮後期 僧役의 類型과 弊端」, 『국사관논총』 107).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는 승역의 비탄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결국 탄압과 비탄압이라는 구도를 형성할 뿐이다. 이러한 구도는 ‘억불’이라는 구조가 전제된 상태로 이루어지는 논의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4) 안계현, 1962, 「龍珠寺의 初期 寺有田畓」, 『한국사상』 4.

하였다.⁵⁾ 또한 승인의 사유 토지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 사례를 검토한 연구도 발표되었다.⁶⁾ 다음으로 개별 사찰의 토지 소유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각각 영광 불갑사(佛甲寺), 남해 화방사(花芳寺)의 사례를 중심으로 토지 소유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들 연구는 각 사찰에 전해지는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소유 전답의 조성 방법과 규모를 고찰하였다.⁷⁾ 이상의 연구 성과를 통해 조선후기 승인과 사찰의 토지 소유에 관한 면모를 밝힐 수 있었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는 승인과 사찰의 재산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대 승인과 사찰의 재산은 별개의 문제였다. 즉, 승인의 재산이라고 하여 전부 소속 사찰의 재산은 아니었고 사찰의 재산이라고 하여 소속 승인의 재산은 아니었다.⁸⁾ 다만 승도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가 사찰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소유 재산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사찰의 토지 소유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승인의 토지 사유에 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불갑사, 화방사의 일부 사례만으로는 조선후기 사찰의 토지 소유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다른 사찰의 사례의 축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연구는 특정 시기에 작성된 토지대장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사찰의 토지 변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찰의 토지 소유와 변동 양상을 점검할 수 있는 사례의 분석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해남 대둔사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사찰의 토지 소유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⁹⁾ 당대 대둔사는 국가·불교적으로 위상이 확고한 사찰이었다.¹⁰⁾ 해당 사찰에는 2건의 『답고(畓庫)』가 전해진다. 각각의 『답고』는 작성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대둔사의 토지 소유 및 변동과 관련된 사항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이다.¹¹⁾ 따라서 대둔사는 조선후기 사찰의 토

5) 김갑주, 1981, 「朝鮮後期の 僧侶와 私有田畓」, 『동국사학』 16.

6) 김갑주, 1992a, 「17세기 中半 僧侶田을 둘러싼 所有權紛爭」, 『불교학보』 29 ; 1992b, 「朝鮮後期 雲門寺位田의 所有權 紛爭」, 『韓國史學論叢』 上, 探求堂.

7) 김갑주, 1982, 「靈光 佛甲寺의 量案研究」, 『숙대사론』 11·12 ; 김석희, 1988, 「朝鮮後期 南海縣 《花芳寺量案》 分析」, 『한국문화연구』 1. 한편 김갑주의 일련의 연구는 2007, 『조선후기 사원경제사 연구』, 경인문화사에 재수록되었다.

8)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지음, 이윤석·다지마 데쓰오[田島哲夫] 옮김, 2020, 『경성제국대학 교수가 쓴 조선시대 불교통사』, 민속원, 857·858쪽.

9) 19세기 초에 간행된 『대둔사지(大菴寺志)』 권1 서두에 “대둔사는 대흥사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대둔사는 대흥사라는 명칭이 혼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근대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대둔사로 불렸다(이종수, 2011, 「조선후기 大菴寺 현창 운동과 그 의미」, 『동국사학』 50, 각주 2번 재인용). 따라서 본 글에서는 대둔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10) 대둔사는 18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위상을 확보해 나갔다. 국가적으로는 표충사(表忠祠)의 사액을 받아 충의를 현창한 공로를 인정받으며 위상을 확보하였고 이후 용주사(龍珠寺)를 창건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불교적으로는 『대둔사지(大菴寺志)』를 편찬하여 사찰의 역사를 정립함과 동시에 사상적으로도 12종사(宗師)와 12강사(講師)를 설정하여 ‘팔도의 종원(宗院)’임을 표방하였다. 따라서 조선후기 대둔사는 국가·불교적 위상이 확고하였다고 할 수 있다. 김용태, 2007, 「조선후기 大菴寺의 表忠祠 건립과 ‘宗院’ 표명」, 『보조사상』 27 ; 이종수, 2011, 앞 논문 ; 2018, 「18세기 불교계의 표충사(表忠祠)와 수충사(酬忠祠) 건립과 국가의 사액」, 『불교학연구』 56 ; 정해득, 2009, 「正祖의 龍珠寺 創建 研究」, 『사학연구』 93.

11) 이하 본 글에서 제시하는 대둔사 관련 자료는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https://kabc.dongguk.edu/index>)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참고하였다.

지 변동을 조망할 수 있는 적합한 사례로 판단된다. 이에 본 글은 해당 자료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대둔사의 토지 소유 및 변동 양상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토지 규모의 변동 원인을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상의 작업을 통해 조선후기 승도와 사찰의 존립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승인(僧人)의 사유 재산과 사전(寺田)의 형성

1) 승인의 토지 소유

지금까지 조선전기의 승인은 개별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근거는 과전법(科田法)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공사천구(公私賤口)·공인(工人)·상인(商人)·매복(賣卜)·맹인(盲人)·무격(巫覡)·창기(倡妓)·승니(僧尼) 등은 본인 및 자손 모두 전지를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바탕으로 조선전기 승 개인의 사유 전답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석되었다.¹²⁾ 대신에 사찰의 운영은 국가로부터 분급된 사원전(寺院田)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고 이해되었다.¹³⁾

하지만 승인의 토지 사유 금지는 여말선초에 국한된 것이었다.¹⁴⁾ 과전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사적 토지매매가 금지되었고 시납 행위도 금지되었기 때문에 승 개인의 사유 전답을 조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1424년(세종 6) 제한적으로 토지의 매매가 허용되었고 1460년(세조 6)부터 토지매매의 제한이 대부분 사라지면서 사적 토지매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졌다.¹⁵⁾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승인도 자유롭게 토지를 집적하기 시작하였다.

성종대부터는 실제 승인의 토지매매 정황이 확인된다.

이수공(李守恭)이 또 아뢰었다. “사사전(寺社田)을 청컨대 모두 수탈하여 향교에 나누어 주어 유생에게 아침저녁으로 주는 것을 넉넉하게 하소서.” 성종이 말하였다. “사사전은 모두 선왕조께서 특별히 내려준 것이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수탈할 수 없다.” 이수공이 아뢰었다. “선왕께서 특별히 사급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성종이 말하였다. “선왕께서 하사한 것이 아니면 내가 주었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즉위한 이후 이런 일은 없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니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였다. “이수공이 말한 것은 승도가 사사로이 전지를 매득하여 농사에 힘쓰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수공이 아뢰었다. “승도가 기름진 땅을 매점하니 신은 이를 거두어 향교에 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극증(李克增)이 아

12)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祿科田. “公私賤口工商賣卜盲人巫覡倡妓僧尼等人 身及子孫 不許受田” ; 김갑주, 앞 책, 154·155쪽

13) 송수환, 1992, 「朝鮮前期의 寺院田-특히 王室關聯 寺院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79.

14) 고려시대에도 승의 사적 재산은 존재하였으며 그중에는 토지도 포함되어 있었다(이병희, 2001, 「高麗時期 僧侶의 個人財産」, 『전통사학』 7).

15) 이영훈, 1999, 「韓國史에 있어서 土地制度의 發展過程」, 『고문서연구』 15, 21쪽.

되었다. “승인이 비록 농사에 힘을 쓰지만 공부(貢賦)와 요역(徭役)이 모두 편호(編戶)와 같은데 무슨 명목으로 거두어 향교에 주겠습니까.”¹⁶⁾

1490년(성종 21) 1월 이수공은 성종에게 사사전을 향교에 소속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이수공이 거론한 사사전은 승도가 사적으로 매득한 전지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하여 이극중은 승인이 매득한 토지는 공부와 요역이 편호와 같기 때문에 회수할 명목이 없다며 반대하였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승인의 사적 토지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들이 매득한 토지에 세금이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토지세의 부과와 합법적인 소유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즉, 늦어도 15세기 말부터는 승인도 백성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토지를 매매할 수 있었고 매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6세기 중엽부터는 승인과 관련된 토지매매문기가 등장한다. 1549년(명종 4) 경주의 손충위택(孫忠衛宅)에서 답(畓)을 매득하면서 작성한 문기에 보은(普崐)이란 승이 답주(畓主)에 기재된 사례가 확인되는 것이다.

가정28년 기유(1594) 2월 [결락] 경주에 거주하는 손충위택에게 주는 명문이다. 이상 명문하는 일은 요긴하게 사용할 일로 대달전원(大達田員)의 관자(觀字) 286 2등답 17부 [卜] 2속(束)을 목면 5승포 11필(疋)로 값을 쳐서 금액대로 받고 본 답고를 영구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다른 것이 있거든 이 명문과 같이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명자주(名字主) 김순천

답주(畓主) 승인 보은

정견(訂見) 학생 김늦산

필집(筆執) 진용교위(進勇校尉) 김¹⁷⁾

답주인 승 보은은 답 17부 2속을 5승포 11필의 값으로 손충위택에 방매하였다. 기본적으로 답주는 해당 토지의 주인을 의미한다. 그런데 본 문기에는 답주 보은 앞에 명자주 김순천이란 인물이 기재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명자(名字)란 깃기[衿記]에 기재된 이름을 의미하는데 명자에 등록된 인물은 해당 토지의 제반 부세를 담당하였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었다.¹⁸⁾ 즉, 본 답은 명자주 김순천과 답주 보은 양측 모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었다. 다만 며칠 뒤 김순천이 상기의 동일한 답 17부 2속을 신역(身役)을 부담하기

16) 『成宗實錄』 권236, 성종 21년 1월 17일 경오. “守恭又啓曰 凡寺社田 請皆收奪 分給鄉校 以贍儒生朝夕之供 上曰 寺社田 皆先王朝特賜 不可一朝遽收 守恭曰 非先王特賜者 亦有之 上曰 非先王所賜 則謂予給之乎 自予卽阡 無有是事 因問左右 思愼對曰 守恭所啓 指僧徒私自買田業農者而言也 守恭曰 緇髡之徒 買占膏腴之地 臣欲收此給鄉校耳 克增啓曰 僧人雖自業農 貢賦徭役 悉同編戶 何名而收沒 以與鄉校乎.”

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7, 『고문서집성』 3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63쪽. “嘉靖貳拾捌年己酉二月[缺] 慶州居孫忠衛宅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要用事 以大達田員觀字二百八十六二等畓十七卜二束庫乙 折木綿五升拾壹疋等乙 依數捧上爲遣 同畓庫乙 永永放賣爲去乎 後次別爲[所有去]等 此明文內兒叱如 告官辨正爲乎事 名字主 金順千[着名][署押] 畓主 僧人普崐[着名] 訂見 學生金芑叱山[着名] 筆執 進勇校尉金[着名.]”

18) 이영훈, 1994, 「朝鮮前期 名字 考察」, 『고문서연구』 6, 34~46쪽.

위해 목면 3동의 값을 받고 재차 방매한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김순천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¹⁹⁾ 따라서 본 답은 실질적으로 김순천이 소유하였으나 보은에게도 소유권이 존재하는 중층적 소유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일반인이 소유한 토지에 승인의 권리가 추가되는 형태의 중층적 소유 관계는 시납이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729년(영조 5) 봉정사(鳳停寺) 화상(和尚) 혜식(惠湜)이 금태명(琴泰鳴)에게 작성해 준 표문(表文)에는 이를 증명할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봉정사에서는 금태명의 모친이 시납한 답 15부를 80냥에 방매하였는데 이때 획득한 80냥을 봉정사와 금태명이 각각 35냥, 45냥씩 가져간 정황이 확인된다.²⁰⁾ 토지의 판매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는 사실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시주자 및 피시주자 양측 모두에게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금태명이 가져간 금액이 비교적 많았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소유권은 시주자에게 존재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김순천과 보은의 중층적 토지 소유 관계 또한 시납의 방식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승인의 토지 사유는 시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17세기 이후 승인의 토지 집적 방식은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가장 보편적으로 토지를 매득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²¹⁾ 승인의 토지 매득은 일반인과 승인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관련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696년(숙종 22) 승 일행(日行)이 김항익(金項益)의 구례 토지면(吐旨面) 수집원(水執員) 답 21부를 정조(正租) 11석을 지불하고 매득한 사례가 확인된다. 김항익은 흉년으로 부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조상에게 상속받아 경작하던 토지를 방매한 것이었다.²²⁾ 또한 1756년(영조 32) 승 청탄(淸坦)이 승 보식(寶湜)의 구례 토지면 팔송정원(八松亭員) 답 8부 6속을 전문(錢文) 8냥을 지불하고 매득한 사례도 보인다. 보식은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하던 것을 이매(移買)하기 위하여 방매한 것이었다.²³⁾

승인의 토지매매는 혈연관계와 사제관계에서도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1704년(숙종 30) 김필홍(金必弘)이 장형(長兄)인 승 처익(處益)에게 토지면 구정자원(九亭子員)에 있는 답 20부 4속을 전문 100냥에 방매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김필홍이 방매한 토지는 삼촌이 생전에 불사(佛事)를 설행하는데 비용이 부족하자 본인이 정조 25석을 지불하고 매득한 토지였다.²⁴⁾ 또한 사승(師僧) 공해(公海)가 상좌(上佐) 정활(淨闊)에게 답 5두락(斗落)을 방매한 사례도 확인된다.²⁵⁾ 승인 간의 토지매매문기에는 일반인과 다르게 상좌 혹은 승류(僧類) 등을 대상으로 후일의 분란을 경계하게 하는 내용을 기입하였다. 이상의 사례들은 승인의 토지매매가 승인을 둘러싼 모든 대상과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승인은 시납의 방식으로 토지를 사유하였다. 시납 또한 일반인과 승인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705년(숙종 31) 김억세(金億世)가 화엄사(華嚴寺) 주지승(住持僧) 늑준(勒俊)에게 토지를 시납한 사례가 확인된다. 김억세는 돌아가신 부모의 삭망일(朔望日)과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7, 앞 책, 464쪽 ; 이영훈, 1994, 앞 논문, 46·47쪽.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9, 『고문서집성』 4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82쪽.

21) 한국학자료센터(<https://kostma.aks.ac.kr>) 및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에서 승인과 관련된 다량의 토지매매문기를 확인할 수 있다.

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8, 『고문서집성』 3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6쪽.

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8, 앞 책, 408쪽.

24) 위 책, 382쪽.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0, 『고문서집성』 5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59쪽.

사명일(四名日)의 초향(招響)을 위해 본인이 매득하여 경작하던 토지면 구정자원(求亭子員) 답 8부 5속을 시납하였다.²⁶⁾ 김억세가 시납한 토지는 제위답(祭位畓)의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708년(숙종 34) 승 처익이 승당(僧堂) 화주(化主) 탄오(坦悟)에게 본인이 매득한 토지를 시납한 사례도 보인다. 처익은 사찰의 화재로 건물을 중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자 본인이 매득한 4필지의 59부 5속을 시납하였다.²⁷⁾ 이처럼 시납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승인 간에도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승인은 상속의 방식으로 토지를 확보하였다. 승인의 상속은 17세기 중엽부터 법제화되었다.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教輯錄)』 「호전(戶典)」의 잡령(雜令)에는 관련 조문이 기록되어 있다.

○ 전답을 소유한 승인은 죽은 후에 족속(族屬)에게 토지를 귀속하고 제자에게 잡물(雜物)을 전한다. 【순치 정유년(1657) 승전(承傳)】

○ 승인의 전답은 4촌 이내의 친족이 있으면 상좌와 더불어 절반을 분급하고 상좌와 4촌 이내의 친족이 없으면 전답을 속공하고 본사(本寺)에 지급하여 승역을 보조한다. 【강희 갑인년(1674) 승전】²⁸⁾

해당 법령은 국가가 마련한 승인의 분재(分財) 기준을 보여준다. 1657년(효종 8)에는 승인 소유의 토지는 친족에게만 상속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1674년(현종 15) 법령이 수정되어 승인의 전답은 친족과 상좌가 있는 경우 각 대상에게 절반씩 분급하고 상속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찰에 귀속시킬 것을 규정하였다.²⁹⁾ 17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법령의 수정은 승인 간의 토지 상속 금지령이 적용되기 어려웠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승인이 사유한 토지의 상속은 혈연관계와 사제관계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 현전하는 승인의 분재기(分財記)를 통해 상속 양상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719년(숙종 45) 사승 수열(守悅)은 동생과 조카에게 여타의 전답을 분재하면서 차상좌(次上佐) 진운(震雲)에게는 장성 내서면(內西面)의 복자답(覆字畓) 11부 6속과 욕자답(欲字畓) 8부를 허여(許與)하였다. 이때 상좌가 퇴속(退俗)할 경우 본 토지를 추심할 것과 동생, 조카, 상좌가 재산으로 분쟁일 일으킬 경우 본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할 것을 명기하였다.³⁰⁾ 승인의 재산이 친족과 상좌에게 분급된 정황이 확인된다. 또한 토지매매문기에서 드러나는 토지 전래 경위에도 승인의 상속 양상이 기재되어 있다. 승인이 방매하는 토지에 기재된 조상전래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8, 앞 책, 236쪽.

27) 위 책, 383쪽.

28) 『신보수교집록』 「호전」 잡령 “○有田畓僧人 身死之後 田土歸諸族屬 雜物則傳諸弟子 【順治丁酉承傳】 ○僧人田畓 有四寸以上親 則與其上佐 折半分給 無上佐無四寸者 則屬公其田畓 仍給本寺 以助僧役 【康熙甲寅承傳】 .”

29) 김갑주, 앞 책, 160~164쪽.

30) 한국학중앙연구원, 「1719년 수열(守悅) 분재기(分財記)」, 한국학자료센터(<https://kostma.aks.ac.kr/>), 2022년 10월 19일; 한편 여기서 등장하는 차상좌라는 표현은 수열의 제자가 다수였다는 점을 알려준다. 사승이 생전에 분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수상좌(首上佐)를 비롯한 모든 상좌들의 합의에 의하여 사승의 재산이 사용되기도 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1740년 노(奴) 소남(少男)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한국학자료센터(<https://kostma.aks.ac.kr/>), 2022년 10월 19일).

(祖上傳來), 사승깃득(師傳衿得), 별급깃득(別給衿得) 등의 표현은 사유 토지가 친족, 사승으로부터 상속되었음을 보여준다.³¹⁾ 이러한 사례들은 승가(僧家)의 분재가 일반인과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조선시대 승인의 토지 사유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승인은 이러한 사유 전답을 기반으로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였다. 이를 별방제(別房制)라고 하였다. 별방제는 사찰의 각 방을 승인에게 분배하여 거처하게 하지만 생활은 각자의 재산으로 영위하는 방식이었다.³²⁾ 하지만 이들은 사찰이라는 일정한 공간에 머물면서 불공(佛供) 등의 공통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재원의 마련이 요구되었다.

2) 전답의 시납(施納)과 사전의 조성

사찰의 운영을 위한 공동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토지를 집적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사찰이 토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승인이 토지를 사유하는 방식과 유사하였다. 즉, 기본적으로 사찰도 매득과 시납의 방식으로 토지를 조성하였다. 1747년(영조 23) 영광 불갑사는 매득 전지 8결 1부 1속, 시납 전지 14결 73부 3속 등 총 27결 81부 1속 규모의 전답을 소유하였다.³³⁾ 1773년(영조 49) 남해 화방사는 매득 전지 17결 63부 4속, 시납 전지 8결 92부 6속 등 총 27결 91부 3속의 토지를 확보하였다.³⁴⁾ 각각 불갑사는 시납, 화방사는 매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³⁵⁾

조선후기 대둔사의 토지 소유 현황은 사찰에서 작성한 『대둔사답고(大菴寺畓庫)』(이하 『답고』)와 『대둔사중답고(大菴寺中畓庫)』(이하 『중답고』)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답고』는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약 150년간 대둔사의 토지를 수록한 답안(畓案)이다.³⁶⁾ 해당 자료는 18세기 전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작성된 이후에도 19세기 초까지 추가로 필지 및 변동 사항이 기재되었다.³⁷⁾

31) 예를 들어 1759년(영조 35) 승 법선(法禪)이 승 법순(法淳)에게 토지를 방매한 사례에는 법선이 해당 토지를 확보하게 된 경위로 조상으로부터 전래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9, 앞 책, 615쪽) 무진년 승 정환이 토지를 방매한 문기에 의하면 전래 경위로 사승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0, 앞 책, 152쪽). 또한 1725년(영조 1) 승 성기(性機)가 승 명선(明善)의 토지를 매득한 문기에는 전래 경위에 사승이 별급(別給)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8, 앞 책, 378쪽).

32) 다카하시 도루 지음, 이윤석·다지마 데쓰오 옮김, 앞 책, 863~865쪽.

33) 김갑주, 앞 책, 201~282쪽.

34) 김석희, 앞 논문, 105·106쪽.

35) 토지 조성 방식에 따른 비중의 차이는 사찰의 성격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갑사는 여말선초까지 사세가 상당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면서 조선후기에는 유서 깊은 지방의 한 사찰로 존재하였다(김갑주, 앞 책, 204~205쪽). 반면 화방사는 17세기 후반부터 종이의 생산처로 부각되었다(이상백, 2022, 『조선후기 남해 화방사의 製紙와 서적 刊印 연구』, 『서지학연구』 89, 117~121쪽). 따라서 불갑사보다 화방사가 토지를 매득할만한 재원을 확보하기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6) 본 『답고』에 기재된 필지는 전부 답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대둔사에는 『해남현두륜산대둔사고금신계승보안(海南縣頭輪山大菴寺古今新戒僧寶案)』이라는 수계(受戒) 명단이 현전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필지의 승인 주명(主名)을 분석하면 전반적으로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대둔사에 출가한 인물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답고』의 기재양식은 다음과 같다.

[泉山面]³⁸⁾

主比丘□敬【乙亥年五月日寺中賣用】 立畚貳斗 五卜五束

主比丘察如 形畚參斗 十卜五束

主比丘慕允【乙亥五月日寺中賣用】 形畚肆斗 十五卜七束

이상은 『답고』 서두의 3필지를 기술한 것이다. 해당 자료는 면(面)을 기준으로 각 필지마다 상단에 주명(主名), 중단에 자답(字畚)과 두락, 하단에 부속(負束)의 면적을 기재하였다.³⁹⁾ 토지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해년 5월 사찰에서 팔아서 사용하였다’와 같이 관련 내용을 주명 옆에 부기하기도 하였다.

우선 『답고』에 기재된 주(主)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 양안에서의 주는 기본적으로 해당 토지의 부세를 책임지는 인원을 의미한다.⁴⁰⁾ 하지만 『답고』에 기재된 주는 자료의 작성 주체가 대둔사라는 점에서 양안과 동일할 수 없다. 본 자료의 주의 성격은 부기된 변동 사항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해당 내용에는 ‘사찰에서 팔아서 사용하였다’라는 기록뿐만 아니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還本主]’라는 기록 또한 확인된다. 이는 각 필지의 소유권이 대둔사와 답고 상의 주 양측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답고』에 등재된 토지는 사찰과 주 양측 모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층적 소유 구조를 보인다.

37) 『답고』의 작성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부기된 내용에 ‘개금시사중매용(改金時寺中賣用)’이라는 정보가 확인된다. 대둔사에서 개금 불사가 진행된 시점은 1749년(영조 25)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1749년에 이루어진 불사가 추가로 기입되었다는 점을 통해 작성 시점을 18세기 전반으로 추정하였다(김선기, 2017, 「18-19세기 大菴寺의 僧役과 補寺활동」,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30쪽).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본 자료의 작성 시기를 1596년(선조 29)으로 추정하였다(김갑주, 앞책, 180~181쪽). 그런데 17세기 중반 이전에 출가한 인원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답고』가 1596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8) 문서의 훼손으로 첫 장의 면명(面名)을 확인할 수 없지만 본 사찰에서 작성된 『보사청답고책(補寺廳畚庫冊)』, 『상경청답지책안(上京廳畚地冊案)』의 면별 기재 순서를 볼 때 녹산면이 가장 처음에 등장한다. 따라서 『답고』 또한 동일할 것으로 판단된다.

39) 자료의 종식과 마모가 심한 관계로 부속의 수량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필지도 존재한다.

40) 조선후기 양안 상의 주에 관한 논의는 일찍부터 진행되었다. 초기 연구에서는 양안에 기재된 주명은 하나의 농가 세대를 대표하는 인원의 실명(實名)이며 이를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보장받았다고 이해하였다(김용섭, 1960a, 「量案의 研究(上) : 朝鮮後期の 農家經濟」, 『사학연구』 7 ; 1960b, 「量案의 研究(下) : 朝鮮後期の 農家經濟」, 『사학연구』 8). 하지만 이후 연구에서 다수의 주명은 분록(分錄), 대록(代錄) 등의 방식으로 기재되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에 양안 상의 주는 실명이 아니며 사적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는 장치도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양안은 전근대시기의 수세를 위한 장부임을 강조하였다(이영훈, 1984, 「量案의 性格에 關한 再檢討: 慶尙道 醴泉郡 庚子量案의 事例 分析」, 『경제사학』 8). 최근의 연구에서는 양안 상의 주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때 사용한 주명은 호명(戶名)이며 호명을 등재했다는 것은 해당 토지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김건태, 2010, 「양전과 토지조사사업의 陳田과 ‘主’ 파악」, 『규장각』 37). 또한 이를 발전시켜 18세기 경자양전 단계에서는 호명을 포함시킨 실명 기재의 원칙을 내세웠지만 이것이 지속되지 못하였고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양안의 주명에 양안만을 위한 양명(量名)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도 발표되었다(김소라, 2021, 「양안의 재해석을 통해 본 조선후기 전세 정책의 특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9~198쪽).

이러한 소유 관계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납이라는 방식을 통해 형성된 것이었다. 결정적으로 현산면의 한 필지에는 ‘시주치적화상(施主致施和尚)’이라는 표기가 발견된다. 따라서 『답고』에 기재된 주는 시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둔사의 토지가 전적으로 시납에 의지하여 집적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시주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1> 『답고』의 시주 유형별 필지 수 및 비율

	승인	일반인	사찰 기구	승·일반인	미상
필지	278	258	3	4	3
비율	51%	47%	0.6%	0.7%	0.6%

* 출처: 『대둔사답고』

시주는 승인, 일반인, 사찰로 구분된다. 『답고』에 기재된 총 546필지 중에 승인이 시주한 필지는 278필지, 일반인이 시주한 필지는 258필지로 전체의 98%를 차지한다. 대다수의 필지가 승인과 일반인의 참여로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승인의 경우에는 전체 필지의 절반 이상을 시납하였다. 이는 승인의 토지 시납이 대둔사의 토지 구성에 근간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출가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승인의 필지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17세기 후반 47필지, 18세기 전반 99필지, 18세기 후반 90필지, 19세기 초 17필지로 파악된다. 승인 필지의 약 68%가 18세기에 조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8세기 전반에 출가한 승인에 의하여 가장 많은 시납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파악된다.

일반인의 시납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선후기 불교는 내세(來世)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종교적 역할을 담당하였다.⁴¹⁾ 당대 대둔사 또한 이러한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위상을 확보하였다.⁴²⁾ 실제 대둔사에는 『불량시주축원(佛糧施主祝願)』, 『불량대시주축원(佛糧大施主祝願)』, 『해남두륜산대둔불량대시주축원책(海南頭崙山大菴佛糧大施主祝願冊)』 등 시주자를 위한 축원 명부가 전해진다. 따라서 일반인의 토지 시납은 신앙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중(寺中) 혹은 벽안전(碧眼殿)이 시주로 기재되기도 하였다. 해당 필지는 단 3필지에 불과하다. 다만 사찰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전각이 참여하였다는 것은 사찰의 재원이 다층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³⁾ 대둔사에는 보사청(補寺廳), 상경청(上京廳), 대동청(大同廳) 등 독자적으로 재원을 운영하는 기구가 존재하였다.⁴⁴⁾ 이외에 승인과 일반인의 공동 명의로 시납된 필지도 존재하였다. 이처럼 당시 대둔사의 토지는 승인, 일반인 등의 시납으로 조성되었다.

41) 김용태, 2021, 『조선 불교사상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419~429쪽

42) 각주 10번 참조.

43) 화방사의 경우 양안의 각 필지마다 총 14개의 소속 전각을 기재하였다. 특히, 불당(佛堂)과 승방(僧房) 소속의 토지가 45.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승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하였다. 김석희, 앞 논문, 102~105쪽

44) 해당 사찰에는 2건의 『답고』 이외에 『보사청납미책(補寺廳納米冊)』, 『보사청답고책』, 『상경청납지책안』, 『대동청등록책(大同廳騰錄冊)』 등 다른 자료가 존재한다. 이를 볼 때 조선후기 개별 사찰은 단일적 체계가 아닌 다층적인 경영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에 진행하고자 한다.

『답고』에 기재된 대둔사의 토지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2> 17세기 후반~19세기 초 대둔사의 시납 토지 규모

면	주	승		일반인		기타	
		두락	결	두락	결	두락	결
녹산면(泉山面)		516.8	17.576	241.5	8.508	11.0	0.405
현산면(縣山面)		146.6	5.054	176.8	6.749	12.0	0.488
은소면(銀所面)		6.0	0.070	15.5	0.700	·	·
삼촌면(三寸面)		121.0	4.890	49.7	1.826	·	·
옥천면(玉泉面)		106.0	4.073	83.5	2.535	·	·
현일면(縣一面)		42.5	1.839	28.5	0.900	·	·
현이면(縣二面)		40.4	1.349	23.0	0.884	·	·
화일면(花一面)		17.5	0.745	83.5	3.354	5.0	0.250
화이면(花二面)		19.5	0.560	58.4	1.780	·	·
북평면(北坪面)		3.0	0.150	43.5	1.498	·	·
백도면(白道面)		6.0	0.190	17.5	0.497	·	·
산이면(山二面)		·	·	4.0	0.117	·	·
계		1025.3	36.496	825.4	29.348	28.0	1.143

* 출처: 『대둔사답고』

* 비고: 자료의 훼손으로 부, 속의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0으로 처리하였다.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시납된 대둔사의 토지는 총 1,878두 7승락, 66결 98부 7속의 규모로 확인된다. 그중에서 승인이 시납한 토지는 36결 49부 6속으로 전체 토지의 약 54.5%에 해당한다. 필지 수보다 실제 면적에서 더욱 높은 비중이 나타난다. 시기별로는 18세기 전반에 출가한 인원이 시납한 토지가 13결 44부 1속으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인이 시납한 토지는 29결 34부 8속으로 약 43.8%에 해당한다. 실제 면적이 필지 수보다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기타 토지는 1결 14부 3속으로 약 1.7%의 비율을 보인다. 따라서 승인이 시납한 토지의 면적이 대둔사의 토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승인의 토지 시납이 대둔사의 토지 구성에 근간이 되었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⁴⁵⁾

당시 대둔사의 토지는 총 12개의 면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중에서 옥천면과 북평면은 영암, 백도면은 강진의 행정구역에 포함된 지역이었다.⁴⁶⁾ 면별 토지 면적을 살펴

45) 사찰에 많은 재물을 시납한 승인은 고승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고승의 전기를 모은 『동사열전(東師列傳)』에는 대둔사의 주지를 역임한 현해 모운(懸解慕閔)이란 승인의 기록이 존재한다. 해당 기록에는 ‘살아서는 풍족하게 지냈고 죽어서는 사리를 남기니 사람들이 기이하다 하네’라는 정약용(丁若鏞)이 찬한 그의 탑명(塔銘)이 전한다(『동사열전』 권4, 「懸解禪師傳」). 이러한 내용은 그가 사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시주의 공덕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답고』에 의하면 모운은 총 6필지 33두락, 1결 14부 2속의 토지를 시납하였다. 승 개인이 전체 토지의 약 1.7%를 시납한 것으로 상당히 많은 재물을 사찰에 시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46) 다만 옥천면은 영암의 행정구역이었지만 해남과 강진 사이에 있는 월경지로 대둔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보면 녹산면 26결 48부 9속, 현산면 12결 29부 1속으로 전체 토지의 약 60%가 집중되었다. 또한 삼촌면과 옥천면에는 각각 6결 71부 6속, 6결 60부 8속의 토지가 조성되었다. 이들 4개 면에는 대둔사 토지의 약 78%가 존재하였는데 해당 면은 대둔사가 위치한 곳에서 가까운 지역이었다. 이는 사찰의 토지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⁴⁷⁾ 결국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시납된 대둔사의 토지는 사찰 인근을 중심으로 승인과 일반인의 시납에 기반하여 형성되었다. 그중에서도 승인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답고』에는 토지의 변동 사항이 부기되었다. 부기된 내용은 방매, 환거(還去), 자연재해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토지의 방매는 대둔사가 사찰을 운영하는데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용도로는 불위(佛位), 불량(佛糧), 세미(稅米), 징색(徵索), 개금(改金), 금고(金鼓), 표충사 및 법당 조성 등이 기재되었다. 이를 통해 대둔사에 시납된 토지가 사찰의 유지·조성, 납세, 불사 설행 등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찰의 토지를 방매하기 위해서는 공의(公儀)가 이루어져야 하였다. 『답고』에는 ‘공의 후에 방매하였다[公儀後放賣]’는 기록이 남아있어 이러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사찰도 마찬가지였다. 1726년(영조 2) 승 성기(性機)에게 발급된 토지매매문기에는 주지 옥매(玉梅)가 사찰의 법당을 이건(移建)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공의를 거쳐 구레 토지면 복재원(伏在員)의 답 4두락을 50냥에 방매한다고 기록되어 있다.⁴⁸⁾ 따라서 토지의 방매는 구성원 간의 공의가 이루어진 후에 진행되었으며 이때의 책임자는 주지였다고 할 수 있다.

토지를 본래 주인이 회수하기도 하였다. 『답고』에는 이를 ‘돌아갔다[還去]’고 표현하였다. 토지의 환거는 승인과 일반인의 구별 없이 이루어졌다. 본래의 주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좌 혹은 친족이 토지를 회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승인이 이거(移去)할 경우 토지를 회수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처럼 사찰의 토지를 회수할 수 있던 것은 해당 토지가 시납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외에 홍수로 인해 경작이 어려워진 토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답고』에는 이를 ‘성천(成川)’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답고』의 필지에는 방매, 환거, 자연재해 등 각종 변동 사항이 기재되었다. 그런데 방매와 환거로 인해 이탈된 필지 수는 각각 107필지, 97필지로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또한 방매의 경우에도 각종 사례가 나타났다. 이는 대둔사의 토지가 다양한 원인으로 감소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사찰의 경제력 감소가 부세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따라서 조선후기 사세 위축의 원인으로 승역만이 주목되었던 기존 통념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3. 18세기 후반 이후 승도(僧徒) 수의 추이와 사전 규모의 변동

1) 균역법(均役法)의 시행과 승도 수의 감소

47) 화방사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찰이 위치한 인근 지역에 소유 토지가 집중되어 있다. 김석희, 앞 논문, 94-97쪽.

4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8, 앞 책, 339쪽.

사찰은 승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공간이다. 따라서 사찰의 경영에는 해당 사찰에 거처하는 승인의 존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승이란 계층은 당대 조선의 백성처럼 세습적 신분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승은 백성이 각종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후대에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형성된 계층이었다. 따라서 승인이 되는 행위 즉, 출가는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출가 인원이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이것에 기반한 사찰의 경제력 또한 유동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18세기 전반까지도 출가는 대표적인 피역(避役)의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이는 김조택(金祖澤)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조정에서 가장 난처한 것은 양역(良役)이니 양정(良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실로 명목이 많은 것에서 연유합니다. (중략) 이것도 이미 한심한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신이 일찍이 영남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삭발하고 치관(緇冠)을 쓴 10세 아이가 집집마다 있는 것을 보고 괴이하게 생각하여 물어보니 군역(軍役)이 두려워 피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미 승이 되었는데 왜 사찰에 올라가지 않느냐고 물으니 다만 군역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반드시 사찰로 갈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도를 안찰하고 봄가을로 순시하러 다닐 때 본 것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에 군역이 고통스럽고 무거운 양정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⁴⁹⁾

1726년(영조 2) 10월 참찬관 김조택은 영조에게 도첩제(度牒制)의 복구를 건의하면서 이와 같이 보고하였다. 그는 양역 확보의 어려움이 군역의 고통에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영남에서 가정마다 10세 아이가 삭발하는 현상을 제시하였다. 그들이 삭발하는 이유는 오직 군역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18세기 전반에도 피역을 위한 출가 행위는 만연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승역이 제도적으로 확립된 시기였다. 승역은 양란 이후 점차 제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675년(숙종 1) 호적에 승인이 등재되기 시작하였다.⁵⁰⁾ 18세기 초에는 “승도가 부역을 도피하는 것은 비록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의승(義僧)의 번상(番上), 승군(僧軍)의 조발(調發), 지지(紙地)의 첨납(添納)에 이르러서는 또한 국가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라는 조정의 인식이 확인된다.⁵¹⁾ 이러한 정황은 승인이 국역 수취를 위해 마련된 장부인 호적에 등재되어 의승, 승군, 종이 공납이라는 부세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⁵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까지 출가는 양인이 군역을 도피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승역 자체로는 출가 행위에 전혀 지장을 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승역이 존재하더라도 출가는 지속되었다.

49) 『승정원일기』 624책, 영조 2년 10월 4일 임술. “卽今朝家之最難處者良役 而良丁之難得 實由於名目之浩多 (중략) 此已寒心 而尤有所駭然者 臣曾於嶺南謫行時 見十歲兒 削髮緇冠者 家家有之 怪而問之 則曰 畏避軍役 又問既爲僧 則何不上寺云爾 則曰 只爲避役 不必往寺云矣 及按本道 春秋巡歷時所見 亦如此 於斯可知軍役之苦重 而良丁之難得矣.”

50) 장경준, 2006,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 배경과 그 양상」, 『대동문화연구』 54.

51) 『비변사등록』 59책, 숙종 34년 2월 30일. “僧徒之逃避賦役 雖似可惡 而至於義僧之番上 僧軍之調發 紙地之添納 亦未始不爲國家設也.”

52) 조선후기 승역의 제도적 추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에 진행하고자 한다.

양인이 균역의 회피를 위해 출가를 선택하는 사회 현상은 1750년(영조 26) 균역법의 실시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1751년(영조 27) 11월 김상성(金尙星)은 영조가 승역의 고난함을 염려하자 “승역이 평민보다 많기 때문에 감필(減正)한 이후로 승이 되는 자가 적다고 한다”며 민간의 분위기를 전달하였다. 이에 영조는 승인이 모두 환속(還俗)한다면 태평한 기상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였다.⁵³⁾ 이후에도 출가 감소 현상은 지속되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민역(民役)이 경감되어 승도들이 이런 풍문을 듣고 환속하는 자가 많다는 채제공(蔡濟恭)의 보고나 기존에는 양정이 모두 승도가 되었는데 감필한 이후에는 점차 모두 환속한다는 홍봉한(洪鳳漢)의 보고에서도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수 있다.⁵⁴⁾ 이는 균역법 시행 이전 혈역(歟役)으로 여겨지던 승역이 양역의 감필 이후 더 이상 혈역처로 기능하지 못하자 승도 수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따라서 균역법의 시행은 승도 감소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⁵⁵⁾

영조는 승도의 감소가 태평한 시대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러한 현상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초래하였다. 1781년(정조 5) 경상도 관찰사 조시준(趙時俊)이 도내의 10가지 폐단을 상소한 내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 도내 의승의 폐단입니다. 승역의 치우친 고통이 평민보다 극심하지만 그들의 자취가 공문(公門)과 멀기 때문에 품은 마음이 있어도 펼칠 방법이 없습니다. 양역의 감포(減布) 이후 백성 중에 산문(山門)에 자취를 의탁하는 자가 거의 없어 유명한 큰 사찰도 남김없이 잔패(殘敗)하였습니다. (중략) 이 때문에 겨우 남은 치도(緇徒)도 바리때를 버리고 머리를 기르고서 기꺼이 환속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100명이 감당할 승역이 10명의 승에게 돌아가고 10개의 사찰에서 감당할 역이 1개의 사찰에 모입니다. 혹 몇몇의 가난한 승인이 한 초암(草庵)을 지키더라도 또한 한두 명의 번전(番錢)을 면하지 못하니 사전(寺田)과 불기(佛器)가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번전의] 징수가 속친(俗親)에게 미치고 그 폐해가 민간에 두루 퍼져 온 경내에 사찰이 없는 읍의 경우에는 장차 백성의 역이 될 것이니 폐단의 혹독함이 어찌 이렇게 극심한 지경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⁵⁶⁾

이상은 조시준이 정조에게 의승방번전(義僧防番錢)의 견감을 요청하면서 의승의 폐단을 전달한 내용이다.⁵⁷⁾ 그는 균역법 이후 승도의 감소로 사찰이 조잔해지자 점차 그들이 번전의 징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 해당 세목이 백성에게 전가되는

53) 『英祖實錄』 권74, 영조 27년 11월 26일 무자. “僧役多於平民 故自減正之後 爲僧者少云矣.”

54) 『承政院日記』 1091책, 영조 29년 2월 26일 임자 ; 『承政院日記』 1102책, 영조 30년 1월 13일 계해.

55) 균역법 이후 승도의 감소가 승역의 완화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주목된다(윤용출, 1998,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출판부, 169~172쪽).

56) 『正祖實錄』 권12, 정조 5년 12월 28일 병신. “一道內義僧之弊也 僧役偏苦 殆甚於平民 而但其跡疎公門 有懷莫伸 蓋自良役減布以後 民人之托跡山門 絕無莖有 名藍巨刹 殘敗無餘 (중략) 以是之故 零殘緇徒 莫不銖長髡 甘心還俗 百僧之役 歸於十僧 十寺之役 萃於一寺 或有數箇貧衲 守一草菴 而亦不免一二名番錢 寺田佛器 已無全存 徵及俗親 害遍閭里 往往有舉一境無寺刹之邑 將爲民夫大同之役 爲弊之酷 胡至此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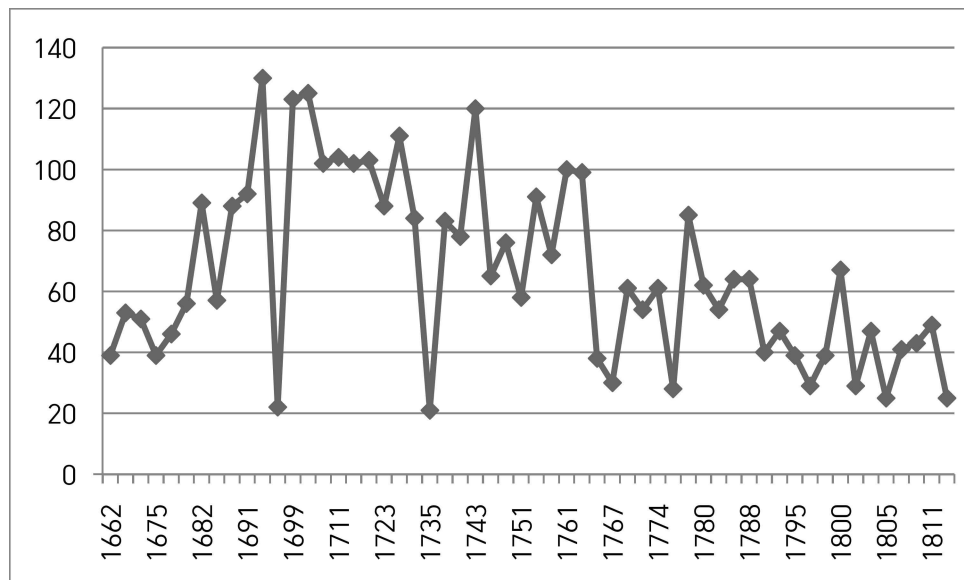
57) 의승방번전제는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에 상번(上番)하는 의승을 대신하여 번전(番錢)을 징수하고 번전으로 승인을 고립(雇立)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정상, 1963, 『南北漢山城 義僧防番錢에 對하여』, 『불교학보』 1 ; 김갑주, 앞 책, 371~417쪽 참고.

문제를 지적하였다. 여기에서 드러나듯이 승도의 감소는 국가적 차원에서 징세의 문제를 초래하였다.⁵⁸⁾ 승역이 고정된 상황에서 이를 부담하는 대상인 승인이 감소하자 수세(收稅)의 부족분이 발생하였고 지방군현에서는 그것을 민간에서 충당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다. 해당 문제는 승도가 확충되거나 승역을 혁파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였다.

승도의 감소는 또한 불교계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조시준의 언급처럼 환속 즉, 역피역(逆避役) 현상이 발생한 것이었다. 승도가 감소하면서 개별 승인이 감당해야 할 부세액이 증가하자 그들은 환속의 방식으로 다시 고역(苦役)을 모면하고자 하였다. 출가 인원의 감소와 환속 인원의 증가는 승도의 감소폭을 증가시켰다. 이로 인해 승인과 사찰이라는 불교계의 두 축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균역법으로 인한 승도의 감소는 승역을 운영하고 사찰을 유지하는데 문제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18세기 후반 출가 인원의 감소는 대둔사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대둔사에는 『해남현두륜산대둔사고금신계승보안(海南縣頭崙山大菴寺古今新戒僧寶案)』(이하 『신계승보안』)이라는 자료가 존재한다. 해당 자료에는 1662년(현종 3)부터 1814년(순조 14)까지 총 56회 3,688명의 수계(受戒)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⁵⁹⁾ 수계자의 명단 하단에는 퇴(退), 거(去), 출(出)이라는 글자가 부기되어 해당 인원의 환속, 이거, 출송(出送)과 같은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계승보안』을 바탕으로 수계 연도별 출가 인원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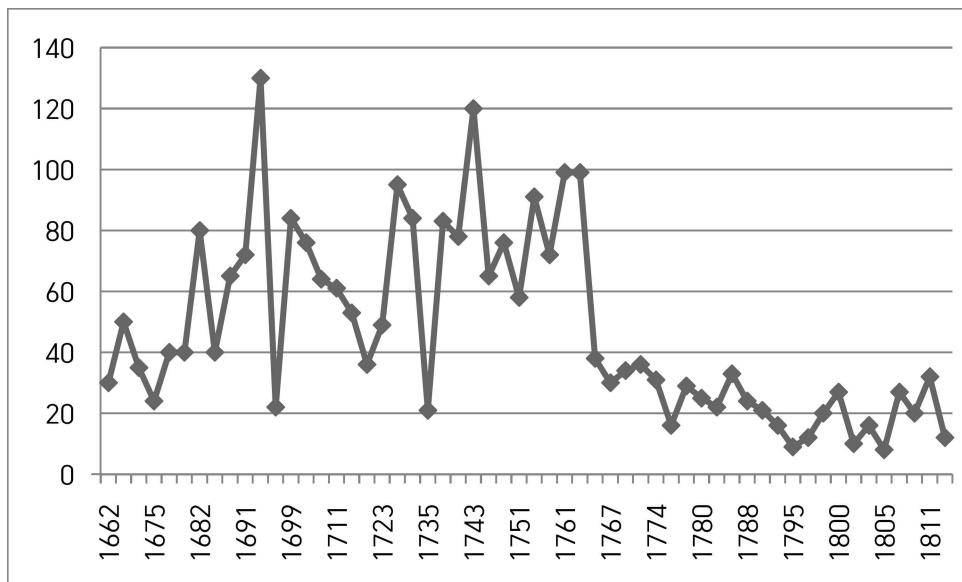
<그림 1> 17세기 후반~19세기 초 대둔사의 출가 인원 추이

58) 승도의 감소와 사찰의 조잔은 의승방변전뿐만 아니라 종이의 공납에도 문제를 초래하였다(『승정원일기』 1668책, 정조 13년 11월 18일 경자).

59) 본 자료의 구서(舊序)에 따르면 수계 명부가 ‘강희 원년(1662)부터 도광 13년(1833)까지 169년간 상(尙)자부터 안(安)자까지의 3,878명이 된다’고 하였으나 실제 자료는 1662년부터 1814년까지 상자부터 대(大)자까지 3,688명의 기록만이 남아있다. 또한 여기서 언급한 신계(新戒)는 신서(新序)에 사미계(沙彌戒)임을 명시하고 있어 본 자료가 출가 명단임을 알 수 있다. 수계는 일반적으로 2~3년에 한 차례씩 이루어졌는데 가까운 경우에는 1년, 먼 경우에는 6년까지의 간격이 존재하였다.

대둔사의 출가 인원은 1662년 39명을 시작으로 17세기 말까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1694년(숙종 20)에는 정점을 맞이하였는데 전 시기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30명의 수계가 이루어졌다. 이후 1720년대까지는 전반적으로 100명을 상회하는 수치가 유지되었다. 1730년대부터는 출가 인원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730년대부터 1760년대 중반까지 약 80명 수준으로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이후 1780년대까지는 약 60명, 19세기 초까지는 약 40명의 수치를 보이며 비교적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준다. 따라서 대둔사의 출가 인원은 시기별로 17세기 후반의 증가기, 17세기 말~18세기 초의 절정 및 유지기, 18세기 중반의 1차 감소기, 18세기 말~19세기 초의 2차 감소기로 정리된다. 이를 볼 때 대둔사의 출가 인원은 18세기 중반 이후의 감소세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전술한 것처럼 균역법이 출가 인원 에 미친 극적인 영향을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계승보안』에는 환속 등의 이유가 기재되어 출가 이후 사찰에서 이탈한 인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수계 연도별 출가 인원에서 이탈자를 제외한 존속 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시기 존속 인원의 추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17세기 후반~19세기 초 대둔사의 출가 후 존속 인원 추이

대둔사의 출가 후 존속 인원은 1660년대부터 1740년대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10년 단위로 수계 연도별 존속 인원의 평균을 살펴보면 그 정점은 1740년대로 해당 시기에는 회당 87명이라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1740년대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존속 인원은 1750년대 약간의 감소세로 전환되더니 1760년대 중반부터 수치가 급감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감소세는 지속되어 1780년대 이후부터는 1660~1670년대의 존속 인원을 밑도는 수치를 보인다. 특히, 1795년(정조 19)에는 수계 인원 39명에 환속 30명, 1805년(순조 5)에는 수계 인원 25명에 환속 17명으로 실질적인 출가 인원이 각각 9명, 8명에 불과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둔사의 출가 후 존속 인원은 1740년대까지 증가세를 보이지만 1760년대 중반 급격히 하락한 이후 이전의 수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760년대 중반 출가 후 존속 인원이 급감하는 이유는 균역법에서 찾을 수 있다. 18세기 후반 이후의 대둔사는 표충사의 건립과 팔도 종원의 표방으로 국가·불교적 위상을 확립한 시기였다.⁶⁰⁾ 따라서 사찰 자체적으로 출가자를 수용하기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는 승인의 감소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현상의 원인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압축된다. 그런데 그 시기가 1760년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균역법의 시행으로 인한 승도의 환속 증가 현상이 대둔사에서도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1750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환속율을 파악해보면 1750년 이전에는 22%, 1750년 이후에는 37%로 증가한 양상이 나타난다. 결국 균역법이 시행된 이후 1760년대부터 대둔사의 승도 유입이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균역법이 승도 수의 감소를 초래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시켜준다.

2) 사전 규모의 축소

19세기 승도 수의 감소가 사찰의 토지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중답고』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중답고』는 19세기 초까지 사용된 『답고』 대신 이후에 새롭게 작성된 답안이다.⁶¹⁾ 『중답고』의 표지에는 ‘임인칠월일(壬寅七月日)’이라는 작성 시기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의 임인년은 1902년(광무 6)으로 판단된다.⁶²⁾ 따라서 해당 자료는 19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약 100년간 대둔사의 토지 소유 양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중답고』의 기재 양식은 『답고』와 동일하다. 면을 기준으로 각 필지마다 상단에 시주명, 중단에 자답과 두락, 하단에 부속의 면적을 기재하였다. 토지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자답 우측에 부기하였다. 부기된 내용은 방매와 환거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다만 해당 자료는 『답고』와 다르게 작성된 이후 필지가 추가로 등재되지 않았다.

『중답고』에는 총 140개의 필지가 기재되었다. 이는 『답고』의 필지 수보다 약 74% 감소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체 140필지 중에 『답고』에 기재되었던 필지는 49필지, 새롭게 조성된 필지는 91필지로 확인된다. 즉, 『중답고』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시납된 토지는 91필지로 『답고』와 비교하면 약 83% 감소한 수치이다. 따라서 19세기 대둔사에 시납된 필지 수는 이전 시기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중답고』 단계에서 시납된 91개의 필지를 시주의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⁶³⁾

60) 각주 10번 참조.

61) 해당 자료가 『답고』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것은 『답고』의 잔존한 필지가 『중답고』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는 『중답고』가 18세기 전반 이후의 임인년인 1782년(정조 6)에 작성되었다고 추측하였다(김선기, 앞 논문, 31쪽). 하지만 『답고』가 19세기 초까지 사용된 것을 볼 때, 『중답고』의 작성 시기는 19세기 초 이후라고 판단된다.

62) 『중답고』의 작성 시기는 19세기 초 이후의 임인년인 1842년(헌종 8) 혹은 1902년(광무 6)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해당 자료의 시주 중에는 만파(萬波)라는 승인이 존재한다. 해당 승인의 생몰년은 『다비계안(茶毘契案)』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1836(헌종 8)~1903년(광무 7)으로 기재되어 있다. 만약 『중답고』가 1842년에 작성되었다면 만파는 7세 이전에 대둔사에 출가하여 7세에 대둔사에 토지를 시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중답고』가 1842년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해당 자료는 1902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중답고』의 시주 유형별 필지 수 및 비율

	승인	일반인	사찰 기구
필지	55	3	33
비율	61%	3%	36%

* 출처: 『대둔사중답고』

시주는 승인, 일반인, 사찰 기구로 구분된다. 총 91필지 중에 승인이 시주한 필지는 55필지로 전체 시납 필지의 61%를 차지한다. 19세기에든 지속적으로 승인의 토지 시납이 대둔사의 토지 집적에 근간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에 일반인이 시주한 필지는 3필지로 3%에 불과하였다. 이전 시기 일반인이 시납한 필지의 비율이 4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격하게 감소한 수치이다.

사찰의 각 기구도 토지 시납에 참여하였다. 해당 필지의 주명은 『답고』에 기재되었던 사중, 벽안전 이외에 삼성암(三聖庵), 문방(門房), 남미륵(南彌勒), 청풍료(淸風寮), 보사청, 대동청, 불량계(佛糧契), 불위계(佛位契), 갑계(甲契), 축계(燭契) 등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이들은 대둔사 내의 암자, 전각, 청, 계로 각각의 청과 계는 사찰의 재정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해당 유형은 33필지로 시납 필지의 36%를 차지하였으며 전부 『중답고』에 새롭게 등재된 것이었다. 이전 시기 사찰 기구의 시납 필지가 전체 필지의 0.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따라서 19세기 대둔사의 토지 조성 양상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일반인의 개별적 참여가 감소한 반면 사찰 기구의 참여가 증가한 경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중답고』에 기재된 대둔사의 토지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4> 19세기 초~19세기 말 대둔사의 시납 토지 규모

면 주	녹산면				현산면			
	구(舊)		신(新)		구(舊)		신(新)	
	두락	결	두락	결	두락	결	두락	결
승인	107.5	2.962	155.0	4.898	29.0	1.291	76.3	3.515
일반인	35.0	1.086	7.0	0.187	16.0	0.665	2.0	0.072
사찰 기구	.	.	42.5	1.297	.	.	86.0	3.906
계	142.5	4.048	204.5	6.382	45.0	1.956	164.3	7.493

* 출처: 『대둔사중답고』

* 비교: 구는 『답고』에서 잔존한 필지, 신은 『중답고』에 새롭게 등재된 필지를 의미한다.

19세기 대둔사의 토지 규모는 총 556두 3승락, 19결 87부 9속으로 확인된다. 이전 시기에 조성된 토지 규모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전체 토지에서 이전 시기에 조성된 49필지의 면적은 6결 4속이며 새로 등재된 91필지의 면적은 13결 87부 5속이다. 즉, 19세기 대둔사에 실질적으로 시납된 토지 면적은 13결 87부 5속이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각각 승인이 시납한

63) 한편 『중답고』에 기재된 총 140필지를 시주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승인이 시주한 필지는 89필지, 일반인이 시주한 필지는 18필지를 차지한다. 그중에서 『답고』에 기재되었던 필지는 각각 34필지, 15필지이다. 사찰 기구로부터 시납된 33필지는 전부 『답고』에 등장하지 않는다.

토지 8결 41부 3속, 일반인이 시납한 토지 25부 9속, 사찰 기구가 시납한 토지 5결 20부 3속으로 승 61%, 일반인 2%, 사찰 기구 37%의 비중을 차지한다. 전반적으로 시주 유형별 필지 수의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19세기 대둔사의 시납 토지 면적은 승인이 시납한 토지가 여전히 중심축을 담당하는 가운데 일반인이 시납한 토지가 급감하고 사찰 기구가 시납한 토지가 급증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19세기 대둔사의 토지는 녹산면과 현산면을 제외한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전 시기 대둔사의 토지가 총 12개의 면에 걸쳐 영암과 강진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필지 수, 토지 면적의 감소와 함께 토지의 분포 범위 또한 사찰의 인근 지역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세기 초를 기준으로 전·후의 대둔사에 시납된 토지 규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조선후기 대둔사 토지 규모의 증감

	『답고』	『중답고』	증감 면적
승인	36결 49부 6속	8결 41부 3속	28결 8부 3속 감소
일반인	29결 34부 8속	25부 9속	29결 8부 9속 감소
사찰 기구	45부 6속	5결 20부 3속	4결 74부 7속 증가
전체	66결 98부 7속	13결 87부 5속	53결 11부 2속 감소

* 출처: 『대둔사답고』, 『대둔사중답고』

대둔사의 전체 토지 면적은 66결 98부 7속에서 13결 87부 5속으로 55결 11부 2속이 감소하였다. 이는 약 79%가 감소한 수치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찰 기구가 시납한 토지가 4결 74부 7속 증가하였으나 승인이 시납한 토지는 28결 8부 3속, 일반인이 시납한 토지는 29결 8부 9속 감소하였다. 결국 19세기 대둔사의 토지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대둔사 토지 규모의 축소 원인은 일차적으로 승인의 참여가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승인의 토지 시납이 감소한 이유는 사찰에 거주하는 승도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승도 수는 사찰의 토지 집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앞서 살펴본 자료들에 의하면 대둔사는 승인의 토지 시납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18세기 전반에 승도의 유입 또한 가장 많았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승도의 급격한 감소 현상이 발생한 18세기 후반 이후 특히, 19세기에는 승인의 토지 시납이 적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실제 『중답고』의 승인 시납 토지의 면적은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한다. 따라서 승도 수의 감소로 승인이 시납한 토지의 면적이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승도의 감소는 균역법의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었다. 결국 대둔사의 토지 면적이 축소된 근본적인 원인은 균역법이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대둔사의 토지 규모가 축소된 원인으로 일반인의 토지 시납이 감소한 측면도 존재한다. 일반인의 토지 시납이 내세 신앙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은 앞서 거론하였다. 그렇다면 19세기 이후 일반인 시납 토지의 축소 현상은 당대 불교의 종교적 영향력의 쇠퇴로 인한 것이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19세기까지도 불교의 영향력은 지속되었다.⁶⁴⁾ 대둔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1817년(순조 17) 대둔사에서는 천불(千佛)을 조성하는 불사를 일으

64) 김용태, 앞 책, 429~436쪽.

켰는데 이때 참여한 민간의 시주자가 676명에 달하였다.⁶⁵⁾ 이처럼 19세기에도 대둔사의 종교적 영향력은 확고하였다. 따라서 일반인의 토지 시납이 감소한 원인을 신앙적 측면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현상에 내포된 사실에 대하여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세기 대둔사 토지 조성의 특징으로 사찰 기구의 토지 시납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불랑계, 불위계, 갑계, 축계 등 각종 사찰계의 존재가 주목된다. 조선후기 사찰계는 전국적으로 성행하였다. 특히, 대다수의 사찰계는 19세기에 조직되었다.⁶⁶⁾ 대둔사에도 총 13건의 사찰계안이 존재하는데 그중 17세기 말에 작성된 1건을 제외하고 전부 19세기 이후에 작성되었다.⁶⁷⁾ 따라서 대둔사도 19세기부터 사찰계의 조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대둔사의 사찰계는 “사찰의 토지가 깎이고 다하여 네 노전(爐殿)에 양식을 잇기 어렵고 등촉(燈燭)을 잇기에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등유시주안(燈油施主案)』의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지 감소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⁶⁸⁾ 그런데 각종 계안이 따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중답고』와는 별도로 사찰의 운영을 위해 이들의 재원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답고』에는 그들의 일부 재원만이 시납되었을뿐 각자의 운영 자금이 별도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세기에 작성된 대둔사의 사찰계안을 살펴보면 총 259명의 일반인이 기재되어 있다.⁶⁹⁾ 이는 각 계에 총 259명의 일반인이 참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59명이라는 수치는 『답고』의 일반인 시납 필지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전 시기만큼 일반인의 시납 행위가 이어졌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응진당창호시주계책(應眞堂窓戶施主稷冊)』과 『연등계록(然燈契錄)』에는 해남뿐만 아니라 진도, 강진, 영암에 거주하는 일반인도 기재되었다. 따라서 시납의 지역적 범위 또한 축소된 것은 아니었다. 결국 『중답고』의 일반인 시납 토지의 감소는 시납 방식의 전환에 따른 착시 현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다수의 일반인이 개별 토지의 시납에서 사찰계원으로서의 참여로 시납 방식을 변경한 것이었다. 이는 『중답고』의 일

65) 이종수, 2014, 「해남 대흥사의 천불 조성과 그 시주자들」, 『강좌미술사』 43.

66) 조선후기 232건의 사찰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시기별로 16세기 1건, 17세기 8건, 18세기 40건, 19세기 150건, 20세기 초 33건으로 구분하고 있다(한상길, 2006, 『조선후기 불교와 寺刹契』, 경인문화사, 55~67쪽). 이를 통해 사찰계가 19세기에 가장 성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선후기 사찰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재창, 1976, 「朝鮮時代 僧侶 甲契의 研究」, 『불교학보』 13 ; 여은경, 1986, 「朝鮮後期の 寺院侵奪과 僧契」, 『북현사림』 9 ; 한상길, 앞 책 참조.

67) 대둔사에 현전하는 사찰계안은 다음과 같다. 『계안책(契案冊)』(1696), 『갑진갑계안(甲辰甲契案)』(1819), 『등유시주안(燈油施主案)』(1832), 『해남대둔사신건대광명전불전등촉계안(海南大菴寺新建大光明殿佛前燈燭契案)』(1848), 『고진불창유계안(古眞佛窓油契案)』(1850), 『다비계안(茶毘契案)』(1850), 『응진당창호시주계책(應眞堂窓戶施主稷冊)』(1857), 『연등계록(然燈契錄)』(1861), 『해남대둔사대법당등촉계안책(海南大菴寺大法堂燈燭契案冊)』(1872), 『대둔사대웅전등유계안(大菴寺大雄殿燈油契案)』(1898), 『명부전현담계안(冥府殿獻畝契案)』(18세기 말~19세기 초), 『대웅전외장등계안(大雄殿外長燈契案)』(1904), 『병자계안(秉字契案)』(1912).

68) 『등유시주안』 “寺土削盡 四爐殿繼糧難 燈燭尤爲難繼.”

69) 19세기에 작성된 대둔사의 사찰계안 7건에는 각각 『등유시주안』 40명, 『해남대둔사신건대광명전불전등촉계안』 29명, 『고진불창유계안』 15명, 『응진당창호시주계책』 34명, 『연등계록』 52명, 『해남대둔사대법당등촉계안책』 14명, 『대둔사대웅전등유계안』 75명의 일반인이 기재되었다. 19세기에 작성된 나머지 2건의 계안에는 승인만이 기재되었다.

반인 시납 토지의 감소량 29결 8부 9속이 여러 사찰계에 의하여 보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⁷⁰⁾

결국 19세기 대둔사의 토지 규모가 축소된 결정적인 원인은 승도가 감소하였다는 데에 있었다. 일반인의 시납 토지 감소분은 사찰계로 보완된 반면 승인의 시납 토지 감소분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사찰계에는 승인도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것도 승인이 참여하여야만 재정이 확충되었다. 승인의 참여가 전제되어 있는 한 사찰계 또한 승도 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즉, 승도의 감소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찰의 경제력 축소 현상을 극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세기 이후 사찰의 경제력 약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후기 사찰의 토지 소유와 변동 양상을 해남 대둔사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사찰의 토지 구성에 기반이 되는 승인의 사유 재산에 대해 검토하였다. 조선시대 승인의 토지 사유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15세기 초를 제외하면 승인도 자유롭게 토지를 사유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매득, 시납, 상속이라는 방식으로 토지를 집적하였다. 이러한 사유 재산을 기반으로 승인은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였고 사찰의 운영에 참여하였다.

조선후기 대둔사의 토지 현황은 『답고』와 『중답고』를 통해 살펴보았다. 『답고』에는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대둔사의 토지 현황이 수록되었다. 당대 대둔사의 토지 규모는 총 66결 98부 7속으로 승인과 일반인의 시납에 기반하여 형성되었다. 전체 토지 면적의 약 54.5%는 승인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는 사찰이 토지를 집적하는데 승인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납된 토지는 방배, 환거, 자연재해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소실되었다. 이는 조선후기 사찰의 경제적 위축이 승역으로 인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런데 승도의 수는 유동적이었다. 승역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던 18세기 전반까지도 출가 행위는 만연하였다. 하지만 1750년 균역법이 시행된 이후 승도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대둔사의 수계 명단인 『신계승보안』을 분석한 결과 1760년대 이후 출가 후 존속 인원이 급감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균역법의 시행이 승도 감소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승도의 감소는 사찰의 경제력 축소로 이어졌다. 『중답고』에는 19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대둔사의 토지 현황이 수록되었다. 당대 대둔사의 토지 규모는 총 13결 87부 5속으로 이전 시기보다 약 79%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토지 규모의 축소는 승인과 일반인의 개별적인 토지 시납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그런데 일반인의 시납 토지 감소분은 사찰계로 보완되었지만 승인 시납 토지의 감소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되지 못하였

70) 대둔사의 각 계안에는 참가자의 명단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계의 조직으로 부족한 재원을 어느 정도 충당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계의 운영에 다수의 일반인이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토지 시납 감소분이 일정 부분 충당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승도의 감소에 있었다. 결국 승도 수의 감소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19세기 이후 사찰의 경제력 약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1. 자료

『고려사』 『성종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신보수교집록』 『대둔사답고』 『대둔사중답고』 『해남현두륜산대둔사고금신계승보안』

2. 저서

강만길, 2003,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김갑주, 2007, 『조선시대 사원경제사 연구』, 경인문화사.
김용태, 2021, 『조선 불교사상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지음, 이윤석·다지마 데쓰오[田島哲夫] 옮김, 2020, 『경성제국대학 교수가 쓴 조선시대 불교통사』, 민속원.
윤용출, 1998,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출판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7, 『고문서집성』 3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8, 『고문서집성』 3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9, 『고문서집성』 4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0, 『고문서집성』 5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상길, 2006, 『조선후기 불교와 寺刹契』, 경인문화사.

3. 논문

김갑주, 1981, 「朝鮮後期の 僧侶와 私有田畓」, 『동국사학』 16.
김갑주, 1982, 「靈光 佛甲寺의 量案研究」, 『숙대사론』 11·12.
김갑주, 1992a, 「17세기 中半 僧侶田을 둘러싼 所有權紛爭」, 『불교학보』 29.
김갑주, 1992b, 「朝鮮後期 雲門寺位田의 所有權 紛爭」, 『韓國史學論叢』 上, 탐구당.
김건태, 2010, 「양전과 토지조사사업의 陳田과 ‘主’ 파악」, 『규장각』 37.
김석희, 1988, 「朝鮮後期 南海縣 《花芳寺量案》 分析」, 『한국문화연구』 1.
김선기, 2017, 「18-19세기 大菴寺의 僧役과 補寺활동」,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소라, 2021, 「양안의 재해석을 통해 본 조선후기 전세 정책의 특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용섭, 1960a, 「量案의 研究(上): 朝鮮後期の 農家經濟」, 『사학연구』 7.
김용섭, 1960b, 「量案의 研究(下): 朝鮮後期の 農家經濟」, 『사학연구』 8.

- 김용태, 2007, 「조선후기 大菴寺의 表忠祠 건립과 ‘宗院’ 표명」, 『보조사상』 27.
- 김용태, 2018, 「조선 불교, 고려 불교의 단절인가 연속인가?」, 『역사비평』 123.
- 손성필, 2013, 「조선시대 승려 賤人身分說의 재검토」, 『보조사상』 40.
- 송수환, 1992, 「朝鮮前期의 寺院田-특히 王室關聯 寺院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79.
- 안계현, 1962, 「龍珠寺의 初期 寺有田畓」, 『한국사상』 4.
- 여은경, 1986, 「朝鮮後期の 寺院侵奪과 僧契」, 『복원사림』 9.
- 오경후, 2005, 「朝鮮後期 僧役의 類型과 弊端」, 『국사관논총』 107.
- 우정상, 1963, 「南北漢山城 義僧防番錢에 對하여」, 『불교학보』 1.
- 이병희, 2001, 「高麗時期 僧侶의 個人財産」, 『전농사학』 7.
- 이상백, 2022, 「조선 후기 남해 화방사의 製紙와 서적 刊印 연구」, 『서지학연구』 89.
- 이영훈, 1984, 「量案의 性格에 관한 再檢討: 慶尙道 醴泉郡 庚子量案의 事例 分析」, 『경제사학』 8.
- 이영훈, 1994, 「朝鮮前期 名字 考察」, 『고문서연구』 6.
- 이영훈, 1999, 「韓國史에 있어서 土地制度의 發展過程」, 『고문서연구』 15.
- 이재창, 1976, 「朝鮮時代 僧侶 甲契의 研究」, 『불교학보』 13.
- 이중수, 2011, 「조선후기 大菴寺 현장 운동과 그 의미」, 『동국사학』 50.
- 이중수, 2014, 「해남 대흥사의 천불 조성과 그 시주자들」, 『강좌미술사』 43.
- 이중수 2018, 「18세기 불교계의 표충사(表忠祠)와 수충사(酬忠祠) 건립과 국가의 사액」, 『불교학연구』 56.
- 장경준, 2006,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 배경과 그 양상」, 『대동문화연구』 54.
- 정해득, 2009, 「正祖의 龍珠寺 創建 研究」, 『사학연구』 9.

4. 전자자료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불고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https://kabc.dongguk.edu/index>)

한국학자료센터(<https://kostma.aks.ac.kr>)

김선기, 「조선후기 사찰의 토지 소유와 변동」에 관한 토론문

손성필(조선대)

조선시대의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조선 사회에서 사찰과 승도의 사회경제적 비중과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학계에는 조선시대 사찰과 승도를 사회경제사적 관점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조선후기 사찰과 승도의 토지 소유에 대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연구라는 점 자체로 그 연구사적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논문의 주요 논지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 보입니다. 1) 조선시대의 승인은 토지를 소유했다. 2) 조선시대에 사찰은 매득과 시납으로 토지를 집적했고 승인의 토지 시납 비중이 가장 컸다. 3) 18세기 중엽 균역법의 시행으로 출가 승도의 수가 감소했다. 4) 승도 수의 감소에 따른 토지 시납 감소로 인해 사찰의 토지 집적 규모도 축소되었다.

18세기 중엽 균역법 시행으로 승도의 수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사찰이 쇠락하고 망폐한다는 기록은, 18세기 후반 『실록』 기사에서 다수 확인됩니다.¹⁾

그 이전의 『실록』 기사에서는 조선 사회에 승도의 수가 많거나 증가하여 그 대책을 논의하는 기사가 대부분이며, 『승정원일기』에는 남한산성을 축조할 때 파악된 승도의 수가 17만에 이른다는 기사도 확인됩니다. 그런데 균역법 시행 이후에 승도의 수가 줄어든다는 기사가 관찬 기록에 처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관찬 기록을 통해 파악되는 사회 현상을, 사찰에 전하는 기록물을 통해 실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의 논지에 크게 이견은 없으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토론자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사』 기사를 근거로 여말선초에 승인의 토지 소유가 일시적으로 금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공사천구(公私賤口)·공인(工人)·상인(商人)·매복(賣卜)·맹인(盲人)·무격(巫覡)·창기(倡妓)·승니(僧尼) 등은 본인 및 자손 모두 전지를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기사의 맥락을 통해 볼 때, ‘승니’는 승인층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규제 대상의 하층 승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주 16)의 인용문에서 사사전은 원래 국가가 사찰에 하사한 토지이나, 승인의 사유 토지를 지칭하기도 했듯이, 당시 사찰과 승인은 다양한 층위와 부류가 존재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승인의 토지 소유는 조선시대에 계속 일반적인 것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 『英祖實錄』 권74, 영조 27년 11월 26일 ; 권81, 영조 30년 4월 29일 ; 권85, 영조 31년 8월 14일 ; 『正祖實錄』 권12, 정조 5년 12월 28일 ; 권16권, 정조 7년 10월 29일 ; 권19, 정조 9년 2월 1일 ; 권21, 정조 10년 4월 20일 ; 권38, 정조 17년 12월 18일 ; 권47, 정조 21년 10월 19일.

2. 이른바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이 논문에서 ‘사전(寺田)’은 사찰이 매득과 시납으로 보유한 토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신 것인지, 매득과 시납을 통한 토지 이외에 사찰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는 없었는지, 시납자와 사찰이 모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중층적 소유 구조의 토지를 사찰 ‘소유’라고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보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이 논문의 주요 근거 자료인 『답고』와 『중답고』의 자료 성격에 대한 설명, 규정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답고』와 『중답고』는 매득과 시납을 통한 대둔사의 소유(보유) 토지 전체를 기재한 장부인 것인지, 시납전이나 ‘답(沓)’만 기재한 장부는 아닌지, 『중답고』는 왜 작성되었고 왜 ‘대둔사중답고’라고 명명했는지, 『답고』 기재 토지와는 별개로 대둔사 승도의 개별 소유 토지가 존재했는지 등에 대한 보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이 논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승인이 출가하면서 자신의 소유 토지를 사찰에 시납하기도 했고, 이 출가 승인의 시납전이 사찰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밝힌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는 대둔사 『답고』와 『신계승보안』의 비교 분석을 통해 밝힌 것인데, 본문에는 출가와 시납과의 상호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시 대둔사 출가승 중에 토지를 시납하는 자의 비중은 얼마나 되었는지, 승인의 토지 시납은 주로 출가할 때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한 보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 이 논문에서 대둔사 『신계승보안』을 근거로 논한대로 18세기 중엽 이후 승도의 감소는 균역법 시행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둔사의 경우 조선후기 불교계 주류인 청허계 문도가 주석한 대찰임에도 출가 승도의 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여타 중소 사찰의 경우 쇠락과 망폐를 면하기 쉽지 않았을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신계승보안』에 나타난 17세기 후반 대둔사 출가 승도의 증가는, 그 시기 승도 수의 전반적인 증가라기보다, 대둔사의 사세 확장에 따른 승도 증가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청합니다.

6. 기타

- 승(僧), 승인(僧人), 승도(僧徒)의 차이?
- 『신계승보안』의 ‘퇴(退)’가 환속?